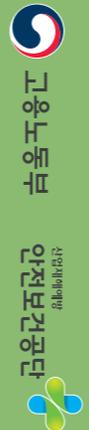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3대 안전 캠페인

4대 금지 캠페인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안전문화 실천서약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목차

개요

1. 2024 중점 추진사항 활동 사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전국 39개 지역에서 안전문화 확산 선도 04

3대 안전 캠페인	10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11
부산/서울/인천/대구/제주/경기/보령	
마이 세이프티 룰(My Safety Rule)	17
제주/경기/광주/양산	
안(安)머들기	20
제주/보령/부산/청주/대전/광주	
4대 금지 캠페인	26
제주/고양파주/부산/익산·군산/포항/대구/여수/경기/평택/서울/안양/창원	
안전문화 실천 서약	36
안양/울산/충주/여수/인천/대구/청주/원주/부산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42
제주/대구/강원·원주/안산/평택/전주/청주/경기	

2. 지역 안실단 우수활동 사례

서울, 강원권	
서울· 지역과 기업의 파트너십, 안전문화를 혁신하다	54
서울지역 안실단 인터뷰 고경환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안전관리팀장	59
강원· 숲과 농장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60
원주· 안전을 즐기는 축제, 예비산업인력의 특별한 체험	63
강릉· 휴가지에서도 안전! 또 안전!	66
태백· 새로운 산업 육성과 안전의식 수준의 성장	69
영월·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로 발휘된 흥익인간 정신	72
부산권	
부산· 안전도 세계화! 안전 공모전	78
부산지역 안실단 인터뷰 손홍열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	83
창원· 외국인 근로자와 프로야구 팬이 함께한 공감의 시간	84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어린이날, 진주에서 확산되는 안전의 빛	87
통영· 출근길에서 시작된 변화, 함께 만드는 일터	90
울산· 4분 영상에 담긴 산업현장의 열정과 변화	93
양산· 지역 대표기업들과 '안전 가치, 우리 같이'	96

2. 지역 안실단 우수활동 사례

대구권	
대구· '원 소스 멀티 유즈' 콘텐츠 활용 극대화	102
대구지역 안실단 인터뷰 김선용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팀장	107
포항· 영일만에서 울려 퍼진 안전문화	108
구미· 고속도로 휴게소와 축제에 전해진 안전	111
영주· 울창한 숲속 찾잔에 깃든 안전	115
안동· 교육청과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118
충부권	
인천· 안전모 착용부터 시작! 모두가 실천하는 안전 약속!	124
인천지역 안실단 인터뷰 정진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환경팀 프로	127
부천· Do-드림(Dream),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화의 시작	128
의정부· '열린 조직문화' 기반 공모, 지난해 대비 1000% 넘게 참여	131
고양· 안전 곁에 두고(Do-Go),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	134
경기권	
경기· 경기마라톤과 함께한 안전의 한 걸음	140
경기지역 안실단 인터뷰 최광범 화성노사민정협의회 회장	145
안양· 지역 기업과 스포츠, 참여로 완성된 캠페인의 힘	146
안산· 글로벌 안전도시를 향한 발걸음	150
성남· 안전을 향한 마음, 언어의 장벽을 넘다	153
평택· 다양성에서 찾은 해답,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한 안전문화	156
광주권	
광주· 민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 광주 자율안전협의체의 도전	162
광주지역 안실단 인터뷰 이성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그룹장	165
전주· 협업 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안전문화 확산	166
익산·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강령 우수사례집	170
군산· 한여름보다 뜨거운 열정, 건강과 안전을 향한 약속	173
목포· 섬과 도시를 잇는 맞춤형 안전 실천의 다리	176
여수· 근로자부터 관광객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 혁신	180
제주· 들기만 해도 설레는 제주(UEJU), 안전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184
대전권	
대전· '오늘의 안전일터'로 안전 노하우 공유	190
대전지역 안실단 인터뷰 윤태수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 회장	195
보령· 현장에서 찾은 안전 관리 해답	196
청주· 일상에서 만나는 안전, 함께하는 변화	200
충주·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으로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203
천안· OX 퀴즈대회로 안전 의식 함양	207
서산· 충남 도민체전서 울려 퍼진 안전	210

협약으로 캠페인 시작, 인증으로 참여를 증대 214

3. 본부 특별활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전국 39개 지역에서 안전문화 확산 선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은 전국 39개 지역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노·사 단체 등 민·관 단체로 구성된 지역 단위 안전문화 확산 조직이다. 이 조직은 2023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안전 경시 의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출범했다. 2024년 안실단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참여 단체의 특성을 살려 전국적으로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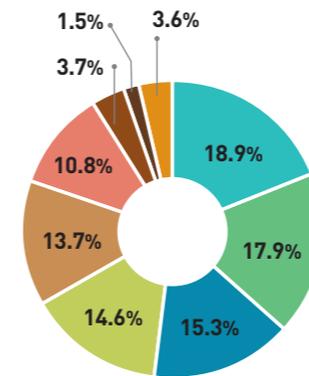
지역별 청지청장이 추진단장으로 운영을 총괄, 참여단체는 유형별 역할 수행

- 안전보건공단(메시지 개발 및 보급)
- 노사단체(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홍보)
- 언론사(기획 기사 작성 및 지면 홍보)
- 업종별 협의회(업종별 특화 안전문화 홍보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기관별 사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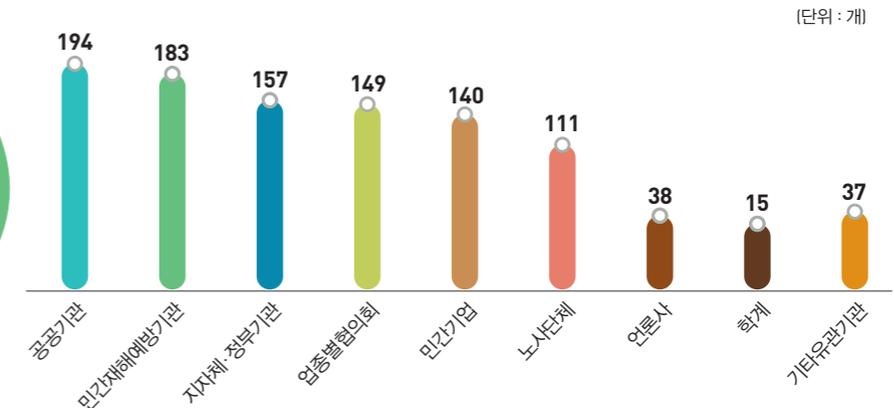
2023년에는 867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1,024개로 참여가 확대**되었다. 특히 민간기관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전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 현황('24 10월)

참여기관 1,024개 중, '공공기관'이 194개(18.9%)로 가장 많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 (183개, 17.9%), '지자체 및 정부기관'(157개, 15.3%), '업종별협의회'(149개, 14.6%), '민간 기업'(140개, 13.7%), '노사단체'(111개, 10.8%), '언론사'(38개, 3.7%), '학계'(15개, 1.5%) 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참여기관(유형별)



전국 공동 활동으로 파급력 높이고,
지역 특화 활동으로 공감 높이고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중앙(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공단 본부)과 전국 39개 지역 단위로 나뉘어 '투 트랙(Two-track)'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 조직은 추진단의 기본계획 수립과 업종 단위 협업을 주도하고, 지역 조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기별 특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중앙활동

중앙 조직은 주요 업종별 선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문화 확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국내 주요 조선사, 전문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메시지를 전파하고 업종별 특화된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활동

지역 조직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춰 특화 활동을 펼쳤다. 예를 들어, 서울은 배달업, 강원은 축산업·임업, 인천은 항만운송업 등 지역 거점 업종에 맞춘 안전 캠페인을 시행하며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지역 축제를 활용해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 안실단 참여 기관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를 확립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활동

안실단이 출범한 첫해에는 조직 구성과 단위별 개별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제를 중심으로 네 가지 중점 활동을 추진하며, 동시다발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다.



서울지역 배달업 대상 활동



강원지역 축산업 대상 활동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중점 활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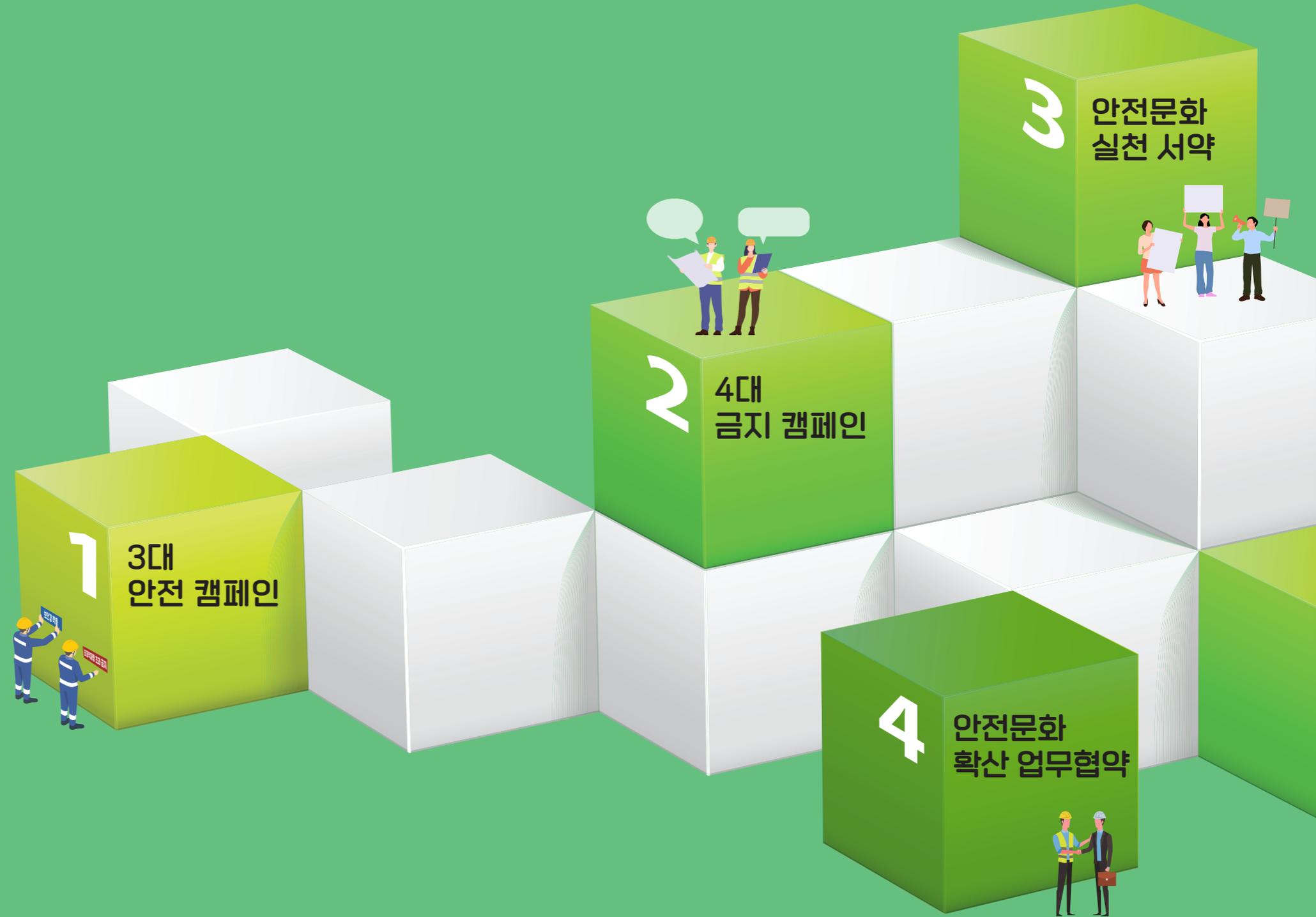
- ① 3대 안전 캠페인
 -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 마이 세이프티룰(My Safety Rule) 캠페인
 - 안(安)머들기 캠페인
- ② 4대 금지 캠페인
- ③ 안전문화 실천서약
- ④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PART 01.

2024 중점 추진사항 활동 사례

2024년은 개별 활동을 넘어

- ① 3대 안전캠페인,
- ② 4대 금지 캠페인,
- ③ 안전문화 실천서약,
- ④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 주제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3대 안전 캠페인으로 산업현장 안전 강화에 나서다

HSE 현황판

추락 주의

전국의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①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②마이 세이프티 룰(My Safety Rule) 캠페인, ③안(安)하며들기 캠페인을 통해 기업,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3대 안전 캠페인은 실질적인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확산하고, 위험요인별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실천적 활동에 집중했다.

01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은 전국 사업장 내 위험 요인과 위험 구역에 안전 메시지를 게시·부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다.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표지판을 개발·보급했으며, 안실단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전파하고 전국 단위 캠페인을 통해 확산을 유도했다. 그 결과, 6,166개 이상의 사업장이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에 참여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월별 예방 위험 요인과 핵심 홍보 메시지>를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 위험표지판 시안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홈페이지(QR코드)에서 확인 가능



3대 사고유형	추락	부딪힘	끼임
8대 위험요인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혼재작업, 충돌방지 장치	방호장치, 정비중 운전정지



월	예방 위험 요인	핵심 홍보 메시지
5	추락사고 예방	▲ 추락 주의 ▲ 고소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6	온열질환 예방	물·그늘·휴식 그늘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세요.
7	화재사고 예방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폭염특보 발효 시, 그늘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세요.
8	화재사고 예방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해 사업장에서 대피훈련 실시!
10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함께해요, 4대 금지 캠페인! 안전한 일터의 시작입니다
12	한랭질환 예방	추운 겨울, 따뜻한 옷과 물, 장소가 건강을 지킵니다! 따뜻한 옷, 물, 장소로 한랭질환 예방하세요! 한랭질환 STOP! 따뜻한 옷, 물, 장소로 건강 챙기세요!

부산 안실단

근로자 안전을 위한 슬로건과 현장 점검의 결합

부산 안실단은 4월 17일 정관산업단지에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위험표지판 부착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켰다.

5월 16일 HJ중공업에서는 고소작업 시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을 강조하는 위험표지판 부착과 현장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렸다.

- 01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안내자료 배포
- 02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01



02

서울 안실단

위험표지판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서울 안실단은 5월부터 7월까지 롯데건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건설현장에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운영하며 추락 위험 구역에 안전메시지를 부착하고 폭염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이마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26개 지점에 “물·바람(그늘)·휴식” 슬로건 현수막과 예방 메시지를 게시하며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폭염 대비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 03 롯데건설(주) 청담삼익아파트 현장
- 04 삼성물산(주) 도곡삼호아파트 현장
- 05 이마트 하역장
- 06 이마트 생수 판매대



03



04



05



06

인천 안실단

송도·계양 지역 사업장 안전환경 조성 주력

인천 안실단은 4월 17일 송도 갯벌타워와 미추홀타워에서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와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진행하며, 155개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4월 18일 서운 산업단지와 계양 DSE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위험구역 식별과 효율적인 위험표지판 부착 방법을 안내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01 송도 갯벌타워 캠페인
- 02 서운 산업단지 캠페인

155개  입주사업장 대상 안전수칙 준수 및 재해 예방 캠페인



01



02

대구 안실단

산업안전보건법의 달 맞아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전개

대구 안실단은 7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의 달을 맞아 대구광역시본부 관내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01

캠페인은 코레일 전광판, 공공기관 현수막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103개 사업장에서 위험요소와 안전수칙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여 현장 참여도를 높였다.

- 01 위험표지판 스티커 부착 예시
- 02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홍보



02

제주 안실단

노사민정 협력으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제주 안실단은 7월 23일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사업 현장에서 작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표지판 부착과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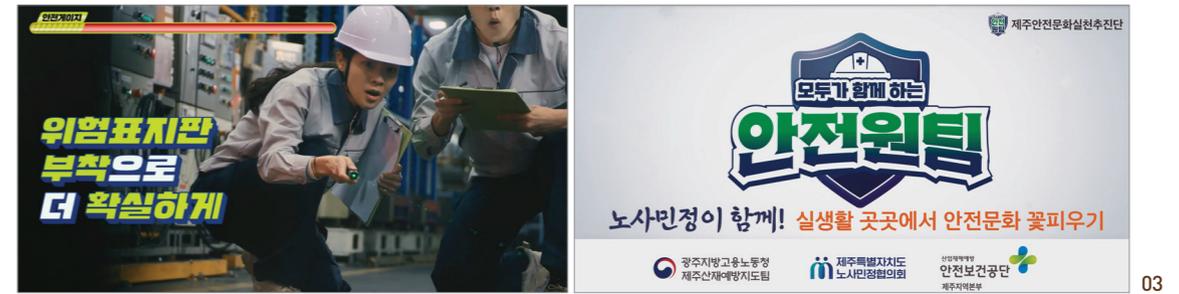
01



02

또한,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노사민정협의회와 공공기관 전광판을 활용해 위험표지판 메시지를 홍보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켰다.

- 01 건설현장 위험표지판 부착 안내
- 02 안전일터 조성의날 캠페인
- 03 대중매체 (제주방송(JBS) TV, 라디오) 활용
"위험이를 잡아라" 콘텐츠 송출



03

경기 안실단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시작된 안전나눔·행복드림 캠페인

- 01 무재해기 전달식
- 02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 03 보호구 지급 행사

경기 안실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화성과 수원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나눔·행복드림 캠페인을 운영하며, 무재해 릴레이 선포식과 위험표지판 부착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01 02 03

보령 안실단

농공단지과 산업단지로 확산된 3대 사고유형 예방 활동

보령 안실단은 4월 23일 보령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안전보건자료를 배포했다.

- 04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홍성 일반 산업단지)
- 05 현장점검 및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04 05

02 마이 세이프티 룰(My Safety Rule) 캠페인

'마이 세이프티 룰 캠페인'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안전수칙(안전원칙·안전강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캠페인 초기에는 현장 캠페인과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업종별 우수 사업장의 안전수칙 우수 사례를 수집했다. 이후, 이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전파하여 이들 사업장도 현장에 적합한 자체 안전강령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여러 지역 안실단에서는 관할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인증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24년 한 해 동안 906개 이상의 사업장이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했고, 이를 이행하며 회사의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인증 캠페인 사례



경기지역 캠페인 포스터



제주지역 인증 이벤트용 보드판

제주 안실단

100개 사업장에서 확산된 마이세이프티를 캠페인

— 제주 안실단은 5월 8~10일,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을 포함한 100개 사업장에서 마이세이프티를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춘 안전수칙 제정과 인증 챌린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재해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 01 안전문화 실천 서약운동
- 02 안전을 지키는 세가지 약속



— 특히, 10월 한 달간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협력해 건설·제조업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전수칙을 전파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확산했다.



경기 안실단

103개 사업장, 안전수칙·실천서약서 제정, 공유 캠페인 동참

— 경기 안실단은 9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이세이프티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과 실천서약서를 제정·공유하는 활동을 유도했다. 103개의 사업장이 자체 안전수칙을 배치한 후, 해당 사진을 QR코드를 통해 인증했다.

03 우리 회사 안전수칙 작성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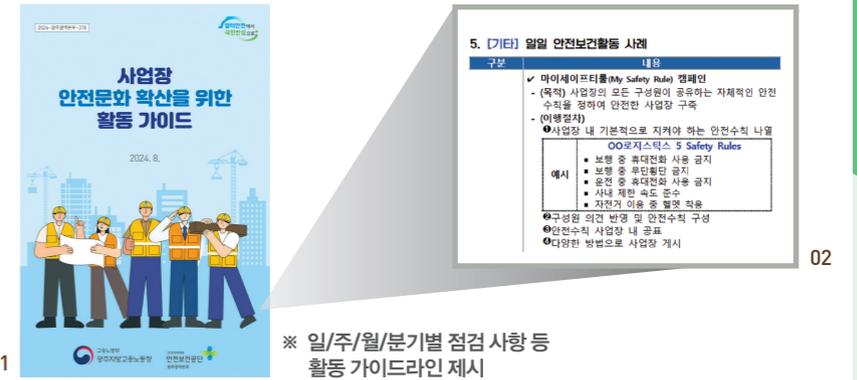
03

광주 안실단

자율적 안전활동 촉진을 위한 실천 가이드 제시

— 광주 안실단은 8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마이세이프티를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문화 확산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는 일·주·월·분기별 점검 사항을 포함해 사업장에서 실천 가능한 안전활동 지침을 제시하며, 지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 01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가이드
- 02 마이세이프티를 캠페인 가이드라인



01 ※ 일/주/월/분기별 점검 사항 등 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양산 안실단

노·사 공동 선언으로 실현하는 안전한 일터

— 양산 안실단은 5월 30일 넥센타이어(주)에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천 선언과 “이것만은 지키자” 세이프티를 제정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부 양산지청장, 공단 경남동부지사장,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등 38명이 참석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03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 04 넥센타이어 세이프티를



03

04

03 안(安)머들기 캠페인

‘안(安)머들기 캠페인’은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안전이 일상에 스며든다’는 의미로 추진되었다. 캠페인 첫째에는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대표 안전 메시지 노출 활동을 전개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의 일상 속으로 안전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으며, 약 558회 이상의 슬로건 캠페인을 추진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내 안실단 기업과의 협업 → 공공기관 인쇄물
-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서 캠페인 실시
예) KTX 역사, 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지역 내 야구장, 축구장, 영화관, 대형 마트 등
- 민간기업 제품 포장 등에 안전 슬로건을 노출
예) 전기요금 고지서, 은행 ATM기, 기업 생산품 포장 등
-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문화 홍보 부스 운영



다양한 용도별 안전메시지 시안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홈페이지(QR코드)에서 확인 가능



제주 안실단

한라산과 삼다수가 전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제주 안실단은 8월 26일 (주)한라산과 협력해 소주병 30만 병 라벨에 “제주의 안전, 한라산과 함께 오늘도 안전하셨나요?”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안전문화를 확산시켰다.

또한,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삼다수 물병 100만 개에 QR 코드와 안전문구를 적용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 01 (주)한라산 소주병 안전문구 삽입
- 02 (주)한라산 업무협약



01



02

안전보건 포럼부터 체험 한마당까지, 안전문화 확산 선도

제주 안실단은 6월 25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7월 소방시설공사업 안전보건 포럼, 9월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10월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심캠프 등에서 합동점검과 안전 메시지 확산 활동을 전개했다.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근로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 03 소방시설공사업 안전보건 포럼
- 04 노동자 한마당 축제
- 05 안전일터 조성의날



03



04



05

보령 안실단

한산모시문화제와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에서
알린 여름철 안전수칙

보령 안실단은 6월 7일 한산모시문화제에서 안머들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채와 종이모자 등 홍보물을 배포해 안전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 01 한산모시문화제 안전문화 체험 부스
- 02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 03 안전문화 홍보물(종이모자)
- 04 안전문화 체험 현장



01 02



03 04

- 05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 06 4대 금지 캠페인 홍보
- 07 안전문화 홍보 부스 운영

8월 30일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에서도 온열질환 예방과 4대 금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여름철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5 06 07

부산 안실단

지역축제 연계 안머들기와
소주병 라벨 메시지

부산 안실단은 10월 12일 제11회 낙동강 구포나루 지역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메시지 부착 등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 01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 부스
- 02 안전메시지 부착 이벤트



01 02

또한, 대선주자와 협력해 C1 소주 병 라벨에 안전 메시지를 삽입해 약 50만 병을 유통하며 부산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확산 시켰다.

- 03 안전 메시지 삽입 제품 라벨(C1 소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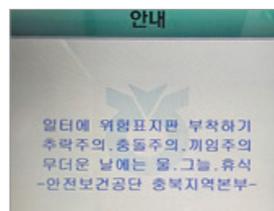


03

청주 안실단

언론 광고와 ATM을 통한
안전 메시지 전달

청주 안실단은 6월 24일 언론 광고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농협 자동화 기기를 활용해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홍보하며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캠페인은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04 농협 자동화기기 홍보(8.5-8.18.) 송출화면

대전 안실단

안전은 기본,
행복은 보너스

대전 안실단은 5월 14일 롯데웰푸드(주)대전공장과 협력해 롯데샌드 파인애플 제품에 안전 메시지를 삽입하며 약 126만 개의 제품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전파했다.



01 파트너십 체결 행사(롯데웰푸드(주) 대전공장)
02 롯데샌드 파인애플 제품 박스 안전메시지

03 파트너십 체결 행사
(주)KT service 남부

이어 8월 28일부터는 (주)KT service 남부와 함께 안전모, 고소작업차, 명함에 안전 문구를 부착하는 등 전국 단위의 실질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했다.



03

대전 안실단

안전실천 메시지 부착 내용

부착 사진	구분	대상	비고
	안전모에 안전 문구 부착	안전모 지급 대상 관리자 및 현장직원(1,500명)	교체 도래 주기까지 노출 가능
	명함 상 안전 문구 표기 ① 안전 파트너 ② 안전은 기본, 행복은 보너스 ③ 우리는 안전한 전파중입니다 ④ 위험을 뚫, 안전의 뚫	명함 지급 대상 직원	4종의 안전 문구 중 직원이 1종을 선택하여 명함에 추가
	고소작업차 버킷 측면에 안전 문구 부착	보유 차량 총 215대	1차 107대 부착 추진, 2차 108대 부착 추진 ('24년도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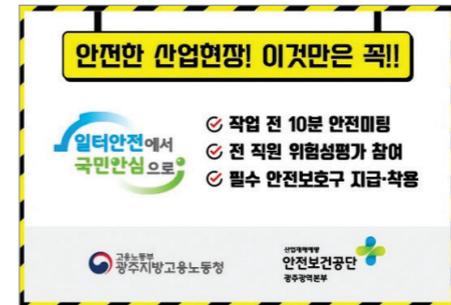
광주 안실단

아파트 관리비로 전파하는 안전문화

광주 안실단은 휴먼정보시스템과 협력해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안전 문화 슬로건과 실천 문구를 삽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가정 내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01 관리비 명세서 안전메시지
02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01



02

간단한 수칙, 확실한 안전

‘4대 금지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 4가지를 선정하여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직관적인 기본 안전수칙을 그림 자료로 개발했으며, 이를 16개 언어로 번역해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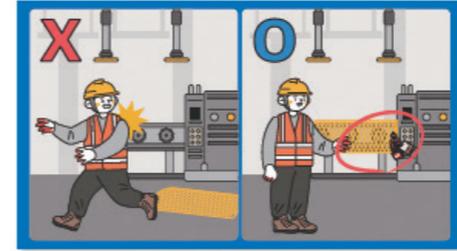
제작된 홍보물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13,8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각 지역 안실단을 통해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전광판, 현수막 게시대, 언론 매체(TV, 라디오 등)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이를 통해 2024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4대 금지 캠페인’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 이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산재 취약 계층의 안전 의식을 높인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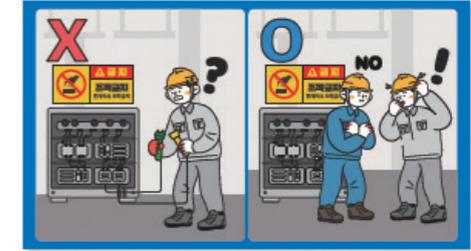


함께해요 4대 금지 캠페인

16개 국어 번역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홈페이지(QR코드)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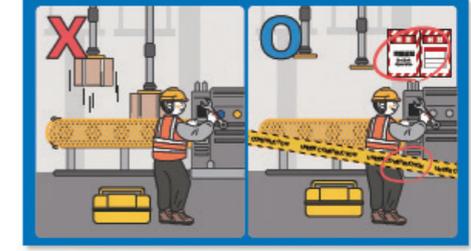
안전장치 해제 금지
Do Not Disable Safety Devices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Do Not Operate Unfamiliar Machinery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Do not work without wearing safety gears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Do Not Service Machinery While in Operation

- ❶ 안전장치는 절대 해제하지 않는다.
작업·설비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장치를 작업 편의 목적으로 해제하지 않음
- ❷ 모르는 기계는 조작하지 않는다.
작업 방법을 모르면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하게 인지한 후 작업
- ❸ 지정된 보호구 없이는 작업하지 않는다.
위험작업·설비별 위험요인에 따라 제공된 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한 후 작업
- ❹ 가동 중인 기계는 정비하지 않는다.
설비의 정비·보수는 반드시 '❶ 전원을 차단'하고 '❷ 가동스위치 잠금 조치'한 후 작업

4대 금지 캠페인 탄생 배경
삼성전기(주)의 사내 안전수칙 제정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보완하고 4대 금지 캠페인을 추진했다.

제주 안실단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체험과 교육의 결합

- 제주 안실단은 10월 26일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심캠프'에서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50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안전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4대 금지 사항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
- 이어 10월 30일 (주)에이치제이중공업 화순항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에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 행동 요령과 사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4대 금지 사항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01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심캠프 4대 금지 캠페인
- 02 화순항 공사 현장 4대 금지 캠페인



01



02

고양파주 안실단

맞춤형 매뉴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고양파주 안실단은 10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대화역 3호선 출구 인근에서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승강기안전공단, 철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OPS(운영 매뉴얼)를 배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 캠페인 현장에서는 4대 금지 수칙에 대한 설명과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안전 관련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01 대화역 4대 금지 캠페인



01

부산 안실단

동래읍성 역사축제에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01 금정구 건설현장 4대 금지 캠페인
- 부산 안실단은 9월 25일, 금정구 건설현장에서 9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단 안전문화팀이 패트를 현장점검과 4대 금지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 착용, 작업 허가 절차 준수 등 현장에서의 실천을 독려하고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했다.



01

- 02 동래읍성 4대 금지 캠페인
- 10월 11일에는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연계하여 동래읍성 북문 일원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 주민과 축제 방문객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시청각 자료와 사고 사례를 활용한 교육, 위험표지판 부착 시연, 체험형 활동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02

익산·군산 안실단

축제 현장에서 전파된
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메시지

- 01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 캠페인
- 02 익산 돌문화 축제 캠페인
- 03 전광판(4대 금지안내)
- 익산군산 안실단은 지역신문(군산미래신문, 익산신문), 라디오(TBN 교통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근로자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사례를 바탕으로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와 돌문화 축제에서 캠페인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4대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1

02

03

- 전광판에는 간결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슬로건이 송출돼, 학생과 시민들이 주로 오는 대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캠페인 메시지가 확산됐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포항 안실단

TBN과 함께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 포항 안실단은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TBN 경북교통방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경북권역 주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등 4가지 핵심 안전 수칙을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라디오 캠페인 홍보 문구(송출 내용)

일터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안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노출 위험이 높은데요. 보다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4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첫째, 안전장치 해제 금지! 둘째,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셋째, 보호구 없는 작업 금지! 넷째,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모두의 안전을 위한 4가지 핵심 안전 수칙! 서로서로 잘 지켜주세요! 기본에 충실한 현장이 안전한 일터의 초석이 됩니다. ANN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가 함께 합니다.

대구 안실단

전자게시대부터 언론까지, 안전수칙 준수 독려 활동 박차

대구 안실단은 신매네거리, 만촌네거리, 수성네거리, MBC네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4대 금지 메시지를 반복 송출 하며 안전문화를 알렸다.

또한, 농공·산업단지와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20개의 현수막을 게시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전파했다.

- 01 전자게시대
- 02 현수막 게시대



01



02

- 03 대구지역 안실단 SNS (네이버 밴드)
- 04 대구제3산업관리공단 홈페이지 팝업 표출
- 05 언론매체 활용 홍보

또한, SNS,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 매체에 4대 금지 캠페인을 홍보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03



04



05

여수 안실단

지역 산업단지와 시민 축제를 연결한 안전문화 캠페인

여수 안실단은 10월 11일과 29일,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와 금호 피앤비화학 출근길에서 4대 금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렸다. 전남드래곤즈 구단, 포스코,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슬로건 홍보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힘썼다. 또한, 여수 시민체육대회에서는 4대 금지 캠페인과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VR 체험을 제공했다. 이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 01 출근길 4대 금지 중심 슬로건 홍보 (GS칼텍스주)
- 02 출근길 4대 금지 중심 슬로건 홍보 (금호피앤비화학주)



01



02

경기 안실단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 대상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경기 안실단은 10월 27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과 4대 금지 캠페인 홍보 활동이 큰 호응을 얻으며, 안전문화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 03 안전문화 체험 부스 4대 금지 캠페인 안내
- 04 위험이를 잡아라! 두더지 잡기
- 05 사진촬영 이벤트



03



04



0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024 "상생협력단" 발대식
2024. 3. 26. (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제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단 발대식



민·관 함께 전국 안전문화 실천 약속

올해 전국 주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들은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민·관 합동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들 행사는 사업장 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노사 협력과 지역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각 지역 안실단들은 현장 안전 점검, 안전 실천 결의문 채택,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양 안실단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행사 성료

광주 안실단은 1월 30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열린 '제조업 자율안전 협의회 발대식'과 3월 19일 호반건설 마곡공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민관합동 결의대회'를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두 행사는 제조업과 건설업 관계자들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점검,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을 결의하며 진행됐다.

- 01 제조업 자율안전협의회 발대식
- 02 건설현장 민관합동 결의대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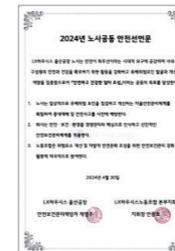
02

울산 안실단

62개 기업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 선언

울산 안실단은 올해 62개 지역 기업과 함께 노사 공동 안전문화 실천 서약을 진행하며 안전문화 확립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참여 기업들이 '2024 노사공동 안전선언문'을 발표하며 자율적인 안전 활동 강화와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 03 노사공동 안전선언문
- 04 ㈜용산 노사공동 안전선언문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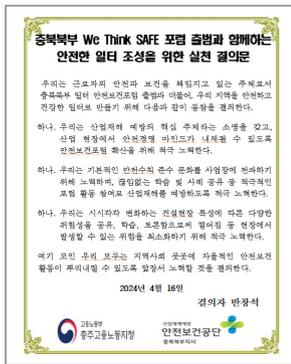


04

충주 안실단

'We Think SAFE 포럼' 출범과 함께 실천 결의문 채택

- 01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천 결의문
 - 02 실천 결의
- 충주 안실단은 4월 16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We Think SAFE 포럼'을 출범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01



02

여수 안실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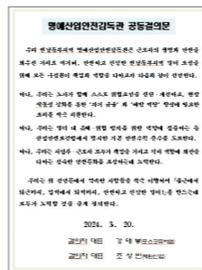
- 03 안전모 수여식
 - 04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 결의대회
 - 05 안전실천결의문
- 여수 안실단은 3월 20일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재예방 활동 안전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을 위한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10월 16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전남동부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참여한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결의대회가 개최되어 공동 결의문을 통해 안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03



04



05

인천 안실단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로 노·사 협력 다짐

- 01 안전문화 실천 결의
 - 02 단체 사진
- 인천 안실단은 3월 26일, 네스트호텔 바움홀A에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발전본부 및 16개 상생협력 사업장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사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50명의 참석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다짐하며 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



01



02

대구 안실단

'안전다짐 희망나무' 행사로 안전문화 실천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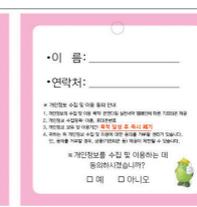
- 03 안전다짐 실천서약 캠페인 안내 X배너
 - 04 안전다짐 실천서약서(전면) (후면)
 - 05 안전다짐 희망나무 팸플릿
- 대구 안실단은 7월 8일부터 26일까지 동대구역과 경북안전체험교육장 등에서 '안전다짐 희망나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약 200명의 참여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서약하고 희망나무에 매달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03



04



04



05

청주 안실단

안전보건포럼 발대식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첫걸음

— 청주 안실단은 5월 2일, 청주에서 안전보건포럼 발대식을 열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 안전관리자협의회 등 약 86명이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 내 안전문화 기반 강화를 다짐하며 진행됐다.



01

01 충북지역 안전보건포럼 발대식

원주 안실단

공공기관 안전 공동선언식 개최로
재해 예방 강화

— 원주 안실단은 9월 4일, 공공기관 안전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공공 부문이 발주자와 도급인으로서 재해 예방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선언식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현장 적용과 실질적 예방 활동 강화를 다짐했다.



02



03

02 공동선언문
03 선언식 단체 사진

부산 안실단

가덕도와 오랑대에서 펼쳐진
안전 실천의 다짐

— 부산 안실단은 3월 12일 가덕도 연대봉과 6월 4일 오랑대 해안산책로에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건설안전협의체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하며, 위험표지판 부착과 안전 실천 서약을 통해 사업장과 지역사회 안전 의식을 고취했다.

- 01 안전문화 실천 서약서 작성 (동부지역 건설안전협의체)
- 02 안전문화 실천 서약서 낭독



01



02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4. 6. 11. (화)

안전문화 확산 위한 맞춤형 업무협약 '눈길'

전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역의 각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중앙 안실단에서 4개 업체, 지역 안실단에서 지역 내 안실단 참여 기업 100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별 안전문화 업무협약은 지역의 특성과 협력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 메시지를 제품 포장,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들은 각 지역 사회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제주 안실단

지역사회와 관광객 모두가 동참한 안전문화 확산

- 제주 안실단은 3월 16일, 제주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 400명이 참여한 한마음 걷기행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 또한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협력해 관광객에게 안전문화 메시지가 담긴 홍보부채와 관광지도를 배포하며 지역과 전국에 걸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01

- 01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한 중대재해예방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 운동
- 02 안전메시지 삽입 홍보부채
- 03 안전메시지 삽입 관광지도
- 04 삽입된 안전문화 메시지 시안



02



03



04

대구 안실단

건물관리업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협력 강화

- 대구 안실단은 4월 17일,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협약을 체결하며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대진단,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건물관리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01 건물관리업 근로자 산재예방 업무협약 체결식

01

강원·원주 안실단

지역 인재 양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체결

- 강원·원주 안실단은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강원대학교 수소안전 클러스터 융합대학원과 함께 안전관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산업안전과 수소안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시설 공동 활용에 나섰다.
-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전 관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2 산학협력 업무협약서
03 업무협약식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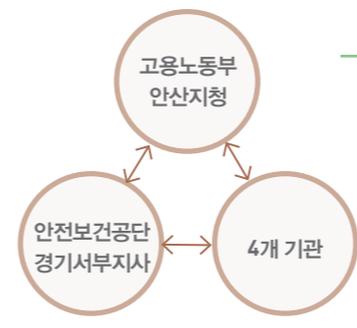


03

안산 안실단

안전교육과 복지 개선으로
산업현장 사고 예방 앞장

- 안산 안실단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춘 안전문화 확산과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예방 수칙 교육과 체크리스트 제공, 유연 근무제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와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4개 기관 협약 체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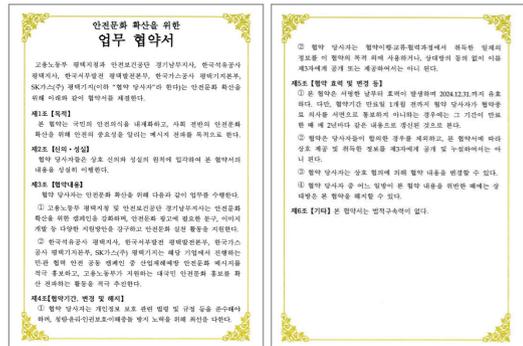
평택 안실단

고위험 업종 안전문화 정착 앞장

평택 안실단은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와 협력해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현장안전수칙 공유, 4대 금지 캠페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합동 교육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01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서
- 02 협약 체결식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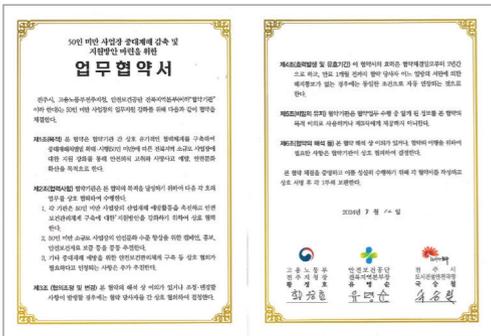
02

전주 안실단

전북지역 9개 지자체와 안전 지원 활동 본격화

전주 안실단은 2월 19일, 고용노동부와 9개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보건교육, 전광판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 03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서
- 04 협약 체결식



03

04

청주 안실단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동행

청주 안실단은 동서식품 진천공장과 롯데웰푸드 청주공장과 파트너십을 신규 체결하며, 제품 배송차량 안전문화 슬로건 부착 및 사업장 내 슬로건 X배너 비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 01 안전문화업무협약 슬로건 X배너
- 02 배송차량 슬로건 부착
- 03 4개 기관 파트너십 체결식
- 04 3개 기관 협약식



또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의 파트너십 재협약을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자료 배포,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과 산업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04

경기 안실단

지역 특성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경기 안실단은 한강(주)와 (주)마니커에프앤지와 협력하여 신규 생산품 포장지와 박스에 안전문구를 삽입하고, 근로자 통근 버스를 랩핑해 사업장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근로자 안전교육, 현장 점검, 최신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산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01 포장박스 삽입 문구 및 삽입 사진
- 02 통근 버스 랩핑 시안 및 통근버스 부착 사진



01



02

협약 기관	협약 기간	협약 내용
(주)한강	`24.6 ~ 25.6	신규 생산품 포장지, 포장박스에 안전문구 삽입 등
(주)마니커에프앤지	`24.6 ~ 25.6	신규 생산품 포장지, 포장박스에 안전문구 삽입 등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24.6 ~ 26..6	전기공사 발주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점검 및 캠페인)
차세대융합기술원	`24.10~26.10	원내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및 기술교류 등(점검 및 캠페인)

그 외
안전문화
메시지
기업 협업
사례



소포상자 및 포장디자인 제작
서울 | 서울우유



클리프스 제품곽
경기 | 동원에프앤비



여명808
의정부 | (주)그래미



처음처럼 라벨
익산, 군산 | 롯데칠성음료(주)



해남 절임배추
목포 | 해남군



휴게소 안전슬로건 노출
여수 | 한국도로공사



솔의논
성남 | 롯데칠성



꽃게랑
성남 | (주)빙그레



왕뚜껑
성남 | (주)팔도



대박 생막걸리
원주 | (주)국순당



하얀설탕
울산 | 삼양사-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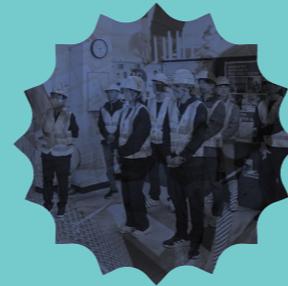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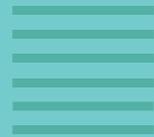
테라 맥주
강원 | 하이트진로(주)

지역 안실단 우수활동 사례





서울, 강원권



서울

54

지역과 기업의 파트너십,
안전문화를 혁신하다

59

서울지역 안실단 인터뷰
고경환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안전관리팀장

강원

60

숲과 농장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원주

63

안전을 즐기는 축제,
예비산업인력의 특별한 체험



강릉

66

휴가지에서도
안전! 또 안전!

태백

69

새로운 산업 육성과
안전의식 수준의 성장

영월

72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로 발휘된
홍익인간 정신



지역과 기업의 파트너십, 안전문화를 혁신하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높게 요구되는 지역이다. 서울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서울 안실단)은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안전문화를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CJ ENM, 배달의민족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은 기업별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접근으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01 SK Broadband 업무협약 체결식



01

SK브로드밴드, 안전문화를 미디어로 전파하다

서울 안실단은 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 가운데 SK Broadband와 협력해 지역 내 안전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 캠페인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다. 서울 안실단에 소속된 SK Broadband는 자사 케이블 TV, 웹툰, 인트라넷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보건 콘텐츠를 송출하며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와 같은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연계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안전보건 웹툰 제작, TV 캠페인 영상 송출, 자막 메시지 홍보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TV 자막을 활용한 홍보 메시지는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써 안전보건 콘텐츠의 대중적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SK Broadband와 함께 제작한 웹툰(브로비의 슬기로운 안전생활)은 재미와 함께 중요한 안전수칙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동시에 전달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01



02

또한 SK Broadband는 사내 인트라넷 채널을 통해 내부 임직원들에게도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문화가 기업 내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 내부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안전보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 01 업무협약서
02 브로비의 슬기로운 안전생활 (온열질환 예방수칙)
03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자막 송출 화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03

대중문화와 안전의 만남, CJ ENM과의 협업

— 서울 안실단은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사인 CJ ENM과 협력해 공연 및 공개방송 사전 영상에 안전문화를 담아내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영상은 대형 콘서트 및 공개방송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단의 안젤이 캐릭터와 CJ ENM의 캐릭터가 함께 등장한 이 영상은 공연장에서의 관람객 대상 안전수칙을 포함한 사전 안내 영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전이라는 주제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대중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점이 주효했다.

CJ ENM은 이 영상을 국내 공연뿐 아니라 해외 공연에서도 송출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안전문화를 알리는 데도 이바지했다. 이는 안전 문화가 국경을 넘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 01 CJ ENM 공연 전 안전영상
- 02 공연 전 안전영상(싸이커스 팬미팅)
- 03 공연 전 안전영상(INCT 재현 콘서트)



01



02



03

— 또 CJ ENM은 영상 제작뿐 아니라 공연장 내부에서의 안전지침 홍보물 배포, 현장 스태프 대상 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공연장 스태프들이 관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배포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 CJ ENM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tvN과 OCN 같은 주요 채널을 통해 '4대 금지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총 352회 송출했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크롤 자막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안전 문화를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였다.

01 스크롤 자막 송출 화면



01

배달의민족, 폭염 속 라이더 안전을 지키다

— 서울 안실단은 배달의민족과 협력하여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배달통 소독, 오토바이 정비 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에게는 냉각수, 안전스티커, 스트레칭 가이드 등의 물품과 안전보건 교육자료가 제공됐으며, 이는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배달 종사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에는 안전수칙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배달의민족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이러한 캠페인 내용을 홍보하며 더 많은 라이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앱 내 팝업 메시지와 라이더 전용 공지사항을 통해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았다.



01

- 01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 02 캠페인 현장 안전보건교육
- 03 캠페인 홍보물 배포



02



03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문화

서울 안실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 협력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SK Broadband, CJ ENM, 배달의민족 등, 기업들과의 협업은 각각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서울 안실단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안전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대중이 안전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과 기업, 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일상과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혁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nterview



서울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창의성과 안전이 공존하는 방송·공연 현장을 만든다



고경환 _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안전관리팀장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고경환 안전관리팀장은 방송과 공연 제작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과 공연이라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대외기관과 협력 중인 CJ ENM은 다양한 안전 관리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위험성 평가홍보영상 송출 ▲'함께해요 4대 금지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공연 전 상영된 안전 영상의 경우 관객들에게 안전 정보를 쉽게 전달하며 호응을 얻었다.

방송과 공연 제작 현장은 창의적이고 다이나믹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CJ ENM은 다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경환 팀장은 SBS, MBC, JYP, SM 등 방송·공연 업계 안전관리 담당자들과의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 회의는 업계의 공통된 문제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안전 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CJ ENM은 안전문화를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확산시키고 있다. 방송과 공연을 활용해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며, 안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고 팀장은 “안전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창의성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숲과 농장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강원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강원 안실단)은 올해 지역 특화사업과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임업 종사자부터 일반 근로자와 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강원 안실단은 안전문화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다.



01

임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강원도는 전국에서 임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임업 종사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이 중요한 과제였다. 강원 안실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흥천 산나물 축제 기간 중 4월 26일 흥천 문화예술회관에서 100여 명의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작업공정별 주의사항과 보건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모 착용, 작업 전 스트레칭 등 기본적인 수칙부터 산림 기계류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실질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01 임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부스

안전교육을 확산시킨 나팔수, 임업 종사자들

4월 26일 교육을 받은 임업 종사자들은 강원 안실단과 함께 흥천 산나물 축제 현장에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나팔수로 변모했다. 같은 직군 종사자들이 직접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방식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 부스에서는 산림 기계 안전 사용법 시연과 더불어 개인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를 거둔 사례이다.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으로 이어진 여름철 활동



01

강원 안실단은 여름철을 맞아 7월 31일 춘천역과 남춘천역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기차역 도착 시간에 맞춰 진행돼 실내외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캠페인에서는 물, 그늘, 휴식이라는 온열질환 예방의 3대 수칙 및 열사병과 일사병 예방법을 안내했다. 행사에서는 부채를 배포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캠페인 중 만난 한 예초작업 근로자는 모든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며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안전문화가 점차 산업현장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01 온열질환 예방 부채 시안

02 출근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2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확장

강원도는 축사 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다. 강원 안실단은 축사 농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슬레이트 지붕 관련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가축경매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붕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는 방법, 적절한 작업 장비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농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장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의 호응을 얻었다. 참여한 농민들은 “그동안 안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 했는데, 직접 장비를 점검하고 사용법을 배우니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원 안실단은 이를 계기로 농업 분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01 축협가축경매장 축산농가 종사자 대상 캠페인



01

안전문화를 통해 연결된 지역사회

강원 안실단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를 안전으로 연결했다. 임업, 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활동은 강원지역 산업 재해 예방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지역축제와 같은 대중적인 행사를 적극 활용했다. 흥천 산나물 축제, 춘천 마임축제 등 지역 행사를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앞으로 강원 안실단은 축제와 산업현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축사 농가와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안전을 즐기는 축제, 예비산업인력의 특별한 체험

강원도 원주시의 대표 축제인 댄싱카니발은 원주시 인구(약 39만 명)의 20%에 달하는 8만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 원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원주 안실단)은 이 축제를 활용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예비산업인력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전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댄싱카니발과 함께한 안전문화 캠페인

원주 안실단은 댄싱카니발 행사장에서 ‘안전문화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첫날에는 행정안전부, 원주시, 원주문화재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내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둘째 날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주말 특성을 반영해, 아동·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체험형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단 대표 캐릭터 안젤이의 스토리를 활용해 안전모와 안전화의 중요성을 알렸고, 이를 통해 어린 나이부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01 댄싱카니발 행사장 4대 금지 캠페인
02 어린이 안전체험 부스 (산업현장 체험 VR)

특히 아동들이 직접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안전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01



02

플라로이드 사진 이벤트로 알린 안전의 가치

— 또한, 원주 안실단은 댄싱카니발 캠페인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플라로이드 사진 이벤트를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고, 이를 개인 SNS에 ‘안전문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했다. 이 이벤트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SNS를 통해 부스 실 방문객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안전에 대해 배우고, 즐겁게 기억을 남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위험이를 잡아라’로 체득한 위험성 평가

— 행사장에서는 ‘위험이를 잡아라’라는 위험성 평가 체험 콘텐츠도 운영됐다. 이 활동은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절차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조치를 실행하며,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어린이들은 활동에 몰입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이러한 경험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안전문화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 특히 한 어린이는 참가 기념품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면 계속해서 참여할 만큼 위험 요소를 찾는데 열의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체험형 콘텐츠가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01 위험성평가 안내판 시안
- 02 위험이를 잡아라 게임 활동판



01 위험이를 잡아라 게임 상품 뽑기



01

예비산업인력에게 전파된 안전문화의 가치

원주 안실단은 댄싱카니발을 통해 예비산업인력인 아동·청소년에게 안전문화를 전파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위험이를 잡아라’와 같은 체험형 콘텐츠는 참여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고, 이들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실천할 잠재적인 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문화를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는 시민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휴가지에서도 안전! 또 안전!

강릉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강릉 안실단)은 강릉의 특색을 살려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해수욕장과 휴게소 등 많은 인구가 몰리는 장소에서 안전문화를 알리는 활동은 휴가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관광하러 가는 길에도 맞춤형 안전교육

- 01 옥계휴게소 안전문화 홍보물
- 02 휴게소 안전보건실

- 강릉은 여름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강릉 안실단은 지역 특성을 살려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KTX 강릉역과 주요 버스 노선 광고를 통해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 또한, 옥계휴게소,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했다. 옥계휴게소는 하루 평균 수만 대의 차량이 방문하는 곳으로, 안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7월 24일부터 휴게소 내에 안전문화를 담은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치하고, 방문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보건실을 운영했다. 안전보건실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내 안전수칙, 고속도로 비상 대처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01



02

해변과 관광지에서 알린 안전 캠페인

- 01 경포대 해수욕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 02 온열 질환 예방 팸플릿 및 쿨키트 배포

-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대 해수욕장에서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이어졌다. 강릉 안실단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 홍보물을 곳곳에 설치하고,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쿨키트를 배포했다.
-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휴가철 안전 수칙 캠페인이 큰 주목을 받았다. 온열 질환 예방 팸플릿과 쿨키트(쿨 토시, 쿨 타월, 물병) 등을 배포하여 피서객들이 이벤트를 즐기는 동시에 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한 관광객은 “해수욕장에서 단순히 즐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안전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01



02

한라시멘트와 함께한 안전문화 확산

- 강릉지역은 건설업과 관련된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건설업 근로자 대상 안전문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강릉 안실단은 지역 대표 기업인 한라시멘트와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메시지 확산에 주력했다. 10월 29일 한라시멘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릉 안실단은 시멘트 포장지에 ‘안전모·안전대 착용! 생명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 메시지는 건설업 근로자와 배송 담당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 또한, 한라시멘트 사내에 마련된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가상현실(VR)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실제 위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01



02



03



04

- 01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
- 02 한라시멘트 무료 안전체험교육
- 03 안전메시지 문구 시안
- 04 안전메시지 삽입 제품 포장

휴가지와 산업현장을 잇는 안전의 다리

강릉 안실단은 관광객과 산업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강릉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관광객들에게는 휴가지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수칙과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안전문화 확산의 두 축을 동시에 강화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안전을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강릉 안실단은 관광과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릉의 특성을 살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문화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지과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 육성과 안전의식 수준의 성장

탄광업의 중심지였던 태백지역은 최근 탄광 폐광 이후 임업과 시멘트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백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태백 안실단)은 지역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도기를 겪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01 관내 청소차 래핑 사진



01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다

01 안전문화 안내자료 배포

- 임업은 단발적이고 흩어진 작업 특성상 집체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어, 태백 안실단은 산림조합과 협력해 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 태백 안실단은 안전문화 메시지가 담긴 홍보자료와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개인보호구 착용 문화를 강조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임업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안전 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했다. 임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01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된 안전문화 홍보

- 올해 초 태백·삼척지역의 대형 시멘트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태백·삼척 안실단은 삼표시멘트와 협력해 지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함께 가요 안전! 같이 가요 우리!'라는 문구가 새겨진 통근버스와 청소 차에 래핑 광고를 진행해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안전문화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래핑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민들은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통근 버스에서 안전 메시지를 보니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삼표시멘트와 함께한 안전문화 체험

01 삼표시멘트 안전문구 삽입 제품 포장
02 업무 협약식

- 삼표시멘트는 태백·삼척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으로, 안전문화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9월 3일, 삼표시멘트는 태백·삼척 안실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600평 규모의 안전 체험 교육장 건립에 착수했다. 이 교육장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안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삼표시멘트는 연간 650만 포대의 시멘트 포장지에 '안전! 가장 중요한 건설자재'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건설업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멘트 포장지는 전국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태백·삼척 안실단과 삼표시멘트는 안전체험 교육장 내에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도입해 더욱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VR을 통해 위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01



02

새로운 산업 구조 속 안전문화의 정착

태백 안실단은 탄광에서 임업과 시멘트업으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 태백 안실단은 삼표시멘트와 협력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태백지역은 안전 중심 산업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백 안실단은 임업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면한 고유의 위험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전체가 안전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로 발휘된 홍익인간 정신

영월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영월 안실단은 올해 영월, 평창, 정선을 포함한 강원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를 공유하고 새롭게 도입하며, 지역 내 산재 감소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안전문화 공유와 확산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도입

- 영월 안실단은 안전문화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를 도입했다.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들이 참여하여 각자 실천하고 있는 우수 안전문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 챌린지 초반에는 참여 기업들이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3차까지 릴레이가 진행되며 입소문이 퍼졌다. 특히, 평창 더위사냥 축제에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챌린지의 취지와 장점을 적극 홍보한 결과, 휘닉스평창(주)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 01 1차 릴레이 챌린지
- 02 릴레이 챌린지 우수사례 공유회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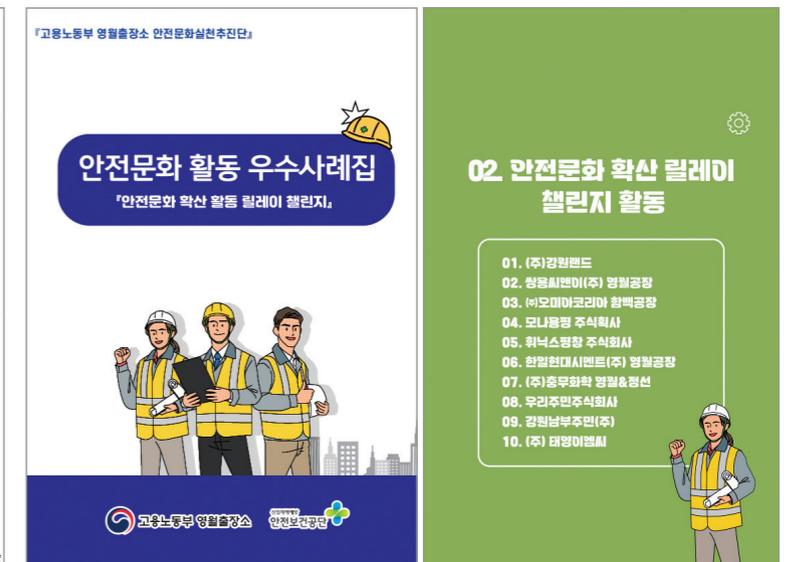
릴레이 챌린지가 낳은 안전문화의 성과

- 릴레이 챌린지의 효과는 참여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4월 강원랜드에서 시작해 10차 릴레이까지 이어진 챌린지는 대형 사업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으로도 확산됐다.
- 특히, ‘High1 안전신문’이라는 온·오프라인 소식지를 통해 각 사업장의 최신 안전 트렌드와 활동 콘텐츠를 전파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이 소식지는 참여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포되며, 안전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서 81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했던 데 비해, 2024년에는 34건으로 산업재해가 58%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 현재 영월 안실단은 릴레이 챌린지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 제작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01 High1 안전신문
- 02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집
(안전문화 확산 활동 릴레이 챌린지)



01



02

고령화 시대에 맞춘 어르신 안전문화 활동

- 영월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활동도 병행됐다. 영월 단종문화제(4월 26일), 평창 더위사냥 축제(7월 26일), 정선 아리랑제(10월 2일) 등 지역 대표 축제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안전보건 캠페인이 진행됐다. 특히 CPR(심폐소생술) 교육과 혈압·혈당 측정 등 체험형 보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더불어 낙상 예방 스트레칭과 간단한 생활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됐다.
- 참여 어르신들은 “이런 캠페인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생겨 좋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작년보다 확대된 콘텐츠는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01 영월 단종문화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2 평창 더위사냥축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3 정선 아리랑제 체험형 보건 프로그램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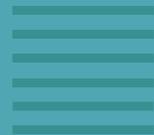
안전문화로 연결된 사람과 기업

영월 안실단의 릴레이 챌린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문화 활동은 사람과 기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안전문화를 공유하며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했고, 지역 주민들은 축제와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이로써 영월 안실단은 산업재해 감소와 지역 안전의식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영월 안실단은 지역의 고령화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릴레이 챌린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례집을 활용해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부산권



부산 78

안전도 세계화!
안전 공모전

83

부산지역 안실단 인터뷰
손흥열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

창원 84

외국인 근로자와 프로야구 팬이
함께한 공감의 시간



진주 87

남강유등축제와 어린이날,
진주에서 확산되는 안전의 빛

통영 90

출근길에서 시작된 변화,
함께 만드는 일터

울산 93

4분 영상에 담긴
산업현장의 열정과 변화

양산 96

지역 대표기업들과
'안전 가치, 우리 같이'



안전도 세계화! 안전 공모전

부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부산안실단)은 2024년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영상 공모전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사진 공모전과 전시회까지, 부산안실단의 활동은 안전문화를 세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올해 부산안실단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어떻게 시민과 산업현장에 스며들게 했는지 살펴본다.

MOU로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영상 공모전

- 부산안실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5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영상 공모전 'DO YOU KNOW 안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캠코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의 사고율 또한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01 영상 공모전 시상식



01

MOU로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영상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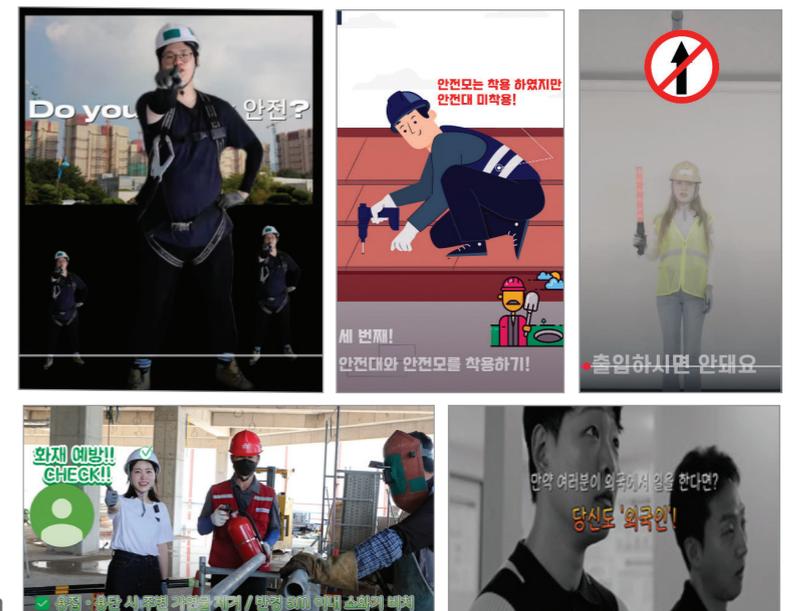
- 6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0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중 대상 1작품, 최우수상 3작품, 우수상 8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작품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건설현장과 외국인 쉼터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자료 배포 방식과 TBM(Tool Box Meeting) 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확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전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산안실단은 이를 기반으로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글로벌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근로자 사고 사망 만인을 추이



01	02	03
04		

- 영상 공모전 대상 (Do you know 안전(안전제일))
-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외국인 건설 근로자를 위한 추락 예방 3단계)
-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우리의 안전은 글로벌!)
-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외국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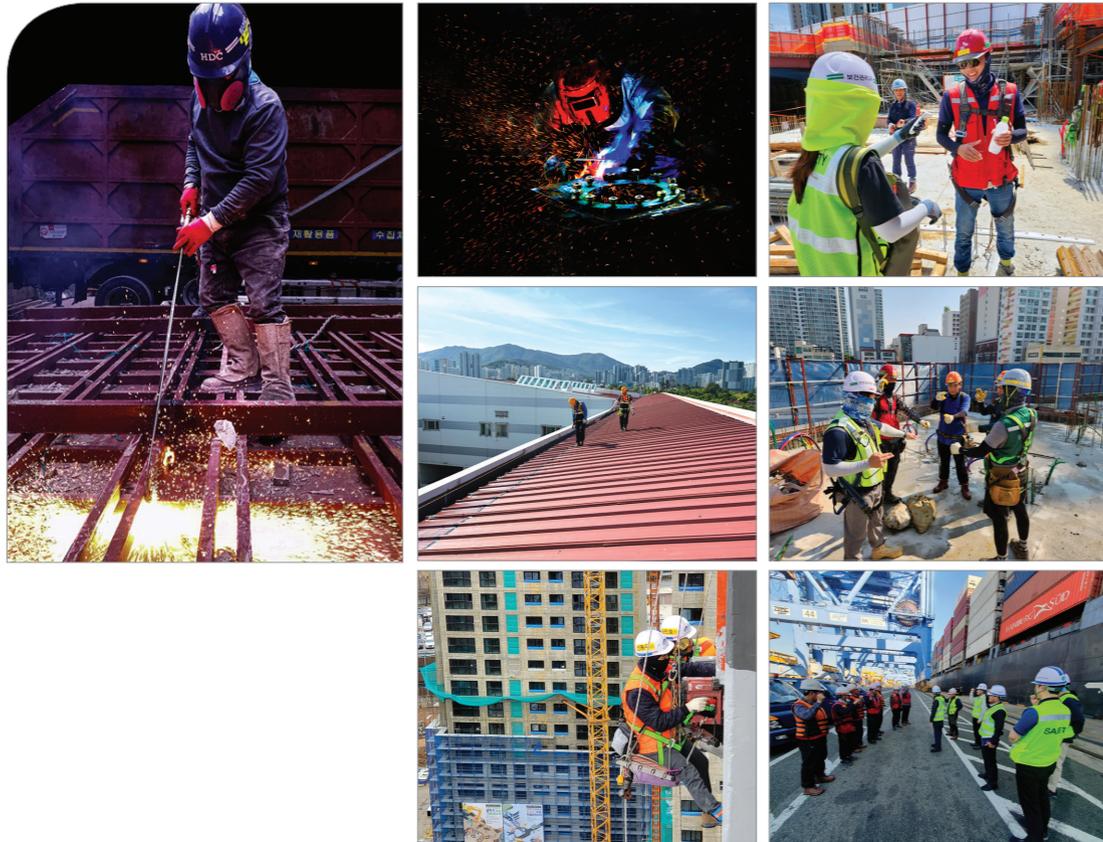
부산시와 함께한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 부산 안실단은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현장의 모습’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0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을 포함한 모든 작품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7월 15일부터 부산시청과 도시철도 연결 통로에 전시됐다.

전시 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로 선정돼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상작은 별도의 전시 공간에서 소개되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수상작 이외 출품작품들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상영돼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단순히 우수작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조명하며 시민들에게 ‘안전이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여 시민들 역시 안전문화를 체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01 사진 공모전 수상작



01



01

01 산업안전보건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장



02

02 안전보건 포토존

지역 브랜드와 협업한 안전문화 확산

— 부산 안실단은 지역 커피 브랜드인 ‘더리터’와 협력해 안전문화를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했다. 더리터의 쿠폰에는 안전 메시지가 삽입됐고, 직영점에는 안전 관련 배너를 게시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이와 함께 안전보건 컨설팅존을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03 더리터 쿠폰의 안전메시지



03



미래를 그린 안전문화 캠페인

- 01 6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오랑대 해안 산책로 캠페인
- 02 6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동래읍성 역사축제
- 03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01



02



03

부산 안실단은 안전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공모전과 전시회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은 모두 부산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콘텐츠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 차이를 뛰어넘는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부산 안실단은 시민들이 안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지역 내 주요 장소에서 월 1회씩 진행되는 합동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안전문화 확산의 모범을 만들다

부산 안실단의 올해 활동은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영상 공모전과 시민 참여형 사진 공모전은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부산 안실단은 더 많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문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안전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부산 안실단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부산을 세계적 수준의 안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interview



부산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문화의 디지털 혁신

손홍열 _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



손홍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프 과장이 외국인 근로자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캠코가 발주한 13개의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평균 35%에 이르며, 골조공사 단계에서는 70~80%에 달한다. 이들은 소통 문제로 인해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다. 실제로 사고사망만인율은 내국인 대비 7배 높으며,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한 손홍열 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영상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규정과 지침을 슷폼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12개의 우수 콘텐츠가 선정됐고, 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해 캠코의 현장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전을 통해 모두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공모전 주제 열람 사이트에는 약 3만 3천 명이 접속했으며, 최종적으로 40팀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캠코는 부산지역 안실단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손홍열 과장은 “앞으로도 부산지역 안실단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프로야구 팬이 함께한 공감의 시간

창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 현장과 프로야구 팬층이 두터운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창원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창원안실단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퀴즈 대회와 NC다이노스와 협력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문화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퀴즈 대회 배움과 축제의 장

- 지난 8월 18일, 창원 마산실내체육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1회 '안전퀴즈왕' 대회가 열렸다. 경남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 비율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는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대회 준비 과정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한국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23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01 외국인 근로자 퀴즈대회 시상식

02 퀴즈대회 슬로건



01



02

외국인 근로자 퀴즈 대회 배움과 축제의 장

- 퀴즈 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어와 산업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테스트하는 OX 문제와 객관식 문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의 절반은 사전에 공개되어,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 대회는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혔다. 특히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00만 원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안전문화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안전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01 퀴즈대회 현장



01

스포츠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NC다이노스 캠페인

- 8월 27일에는 창원NC파크 야구장에서 NC다이노스와 협업하여 진행된 안전문화 캠페인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주제로 열렸다. 약 5,000 명의 야구 팬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스포츠를 활용해 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 경기 전과 경기 중에는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산업재해 철벽 방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등 안전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송출됐다. 단순히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경기장 입구에서 관객 참여형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온음료를 제공하는 등 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특히 NC다이노스의 마스코트와 안전보건공단의 캐릭터가 함께 등장한 장면은 캠페인의 친근함을 더하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족 단위 관객들은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안전문화를 일상에 녹이는 작은 경험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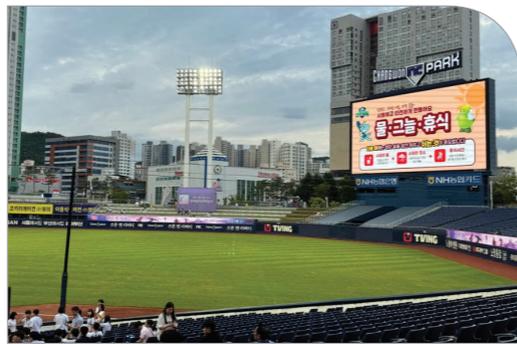
스포츠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NC다이노스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팬들에게는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경기장의 스태프들에게는 폭염 속에서의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야구 경기 관람을 넘어, 지역 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특별한 경험으로 자리잡았다.

- 01 창원 NC파크 야구장 캠페인
- 02 경기장 전광판 이미지 송출



01



02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외국인 근로자 퀴즈 대회와 NC다이노스 캠페인은 창원 안실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퀴즈 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문화를 교육적이면서도 즐겁게 전달하며, 참가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프로야구 캠페인은 스포츠와 대중문화를 결합해 안전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창원 안실단은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퀴즈 대회를 정례화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C다이노스와 같은 대중적인 채널을 활용한 캠페인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은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남강유등축제와 어린이날,
진주에서 확산되는 안전의 빛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 도시 진주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이색적인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VR 안전보건 체험과 진주의 대표 축제인 남강유등축제와 연계된 캠페인은 지역 사회에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 진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진주 안실단의 노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며,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01

01 유등축제 캠페인

어린이날 VR 체험,
안전문화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

지난 5월 5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축제는 안전문화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됐다. 진주 안실단이 준비한 VR 안전보건 체험 부스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VR 체험 부스는 건설업, 제조업, 배달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하며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달업 사고와 같은 주제를 선정해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했다. 가상현실 속에서 어린이들은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배우며 실질적인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어린이날
VR 체험,
안전문화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

이 외에도 풍선 터뜨리기, 다트 게임, 젠가 등 어린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동물 모양 풍선, 비눗방울 장난감, 어린이 우산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만족감을 높였다.

행사는 당초 오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오전까지만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주 안실단 직원들은 체계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행사를 차질 없이 운영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가족들이 행사장을 찾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01 안전 슬로건 외치기! 젠가게임
- 02 안전보건 VR체험 교육
- 03 풍선 터뜨려 다트 게임
- 04 안전표지 맞추기 메모리 게임



01



02



03



04

유등과 함께
퍼진 안전 메시지,
남강유등축제
캠페인

10월 11일, 진주의 대표 축제인 남강유등축제는 지역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으로 더욱 특별해졌다. 진주 안실단은 경남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4대 금지 캠페인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남강 일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 단원들은 칫솔 세트, 물티슈 등 실용적인 홍보물품 1,300개를 나눠주며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업재해 예방 4대 금지'를 주제로 한 피켓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일부 방문객은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안전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캠페인은 낮 시간대에 진행되어 많은 방문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유등축제의 특성상 야간 방문객이 많아 캠페인의 시간적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진주 안실단은 앞으로 유등축제의 화려한 야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야간 캠페인을 기획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을 밝혔다.

- 01 유등축제 안전문화 홍보
- 02 유등축제 홍보물 배포



01



02

안전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진주, 모두의 참여로 이룬다

어린이날 축제와 남강유등축제 캠페인은 어린이와 성인이라는 각각의 대상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한 사례다. VR 체험 부스는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유등축제 캠페인은 대규모 방문객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진주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캠페인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축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깊이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진주를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출근길에서 시작된 변화, 함께 만드는 일터

거제·통영·고성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지로, 조선업과 건설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까다롭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거제·통영·고성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통영안실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공모전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출근길에서 시작된 변화, 거제·통영·고성 안전문화 캠페인

— 지난 4월, 통영을 포함한 거제·고성에서 안실단의 주도 아래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이 열렸다. 이 캠페인은 지역 내 사업장 정문에서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이 출근길에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들이 모이는 시간대를 활용한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통영·고성은 조선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아 산업재해 발생률도 높은 편이다. 실제로 2024년 1분기 동안 8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01 출근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2 SK오션플랜트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1



02

출근길에서 시작된 변화, 거제·통영·고성 안전문화 캠페인

- 캠페인은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며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선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고, 건설업에서는 추락 재해 예방 메시지가, 제조업에서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칙이 강조됐다. 단원들은 근로자들에게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효율성을 높였고,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 고용노동부, 지역 지자체, 선도기업 등이 협력해 이루어진 이번 캠페인은 단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 단원은 “출근길에 근로자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반응을 보여준 덕분에 더욱 보람을 느꼈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01 고성용산사거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2 사업장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01



02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만든 안전의 메시지, 슬로건 공모전

- 5월에는 거제·통영·고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슬로건 공모전이 열렸다.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참여해 12일 동안 총 376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모전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우리의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의 안전은 같습니다”라는 슬로건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작품은 고용노동부와 경남지역본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이후 현수막과 홍보물 형태로 제작돼 지역 내 주요 지자체와 기업에 게시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만든 안전의 메시지, 슬로건 공모전

- 거제·통영·고성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적 장벽과 낮은 숙련도로 인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이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슬로건 공모전은 단순히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문화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이 공모전을 정례화해 더욱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01 외국인 근로자 안전문화 슬로건 당선작 현수막



01

안전문화 확산으로 더욱 안전한 통영을 꿈꾸다

거제·통영·고성에서 진행된 출근길 캠페인과 슬로건 공모전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출근길 캠페인은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며, 슬로건 공모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통영 안실단은 앞으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전문화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다. 거제·통영·고성 안실단은 경남 지역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4분 영상에 담긴 산업현장의 열정과 변화

‘2024년 울산지역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은 울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울산 안실단)이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지역 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자리 잡은 울산은 기업들의 안전관리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울산 안실단은 기업 간 협력과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안전을 잇는 중심, 울산 안실단의 노력

- 01 2024 산업안전보건 영상 공모전 시상식
- 02 2024 산업안전보건 영상 공모전 포스터

울산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울산시청, 업종별 협의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축이다. 울산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기업들이 각자의 안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지식공유장터를 운영하며, 기업 간 우수한 안전보건지식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 UCC 공모전’으로 전환하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01



02

안전을 잇는 중심, 울산 안실단의 노력

이 공모전은 울산 지역의 독창적인 안전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으며, 산업 안전보건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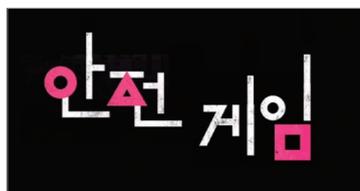
올해 공모전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위험성 평가'를 세부 주제로 선정했으며, 이외에도 산업안전 분야 아이디어와 안전관리 노하우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공모 대상으로 삼았다. 울산 안실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19개의 안전 이야기, 기업들이 전한 메시지

2024 산업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에는 총 119점의 작품이 접수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모전은 울산 지역 근로자 개인은 물론 단체도 참여할 수 있어 울산의 여러 기업들이 팀 단위로 참여했다. 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기업들은 영상 제작에 대한 열의를 높이고 활발한 경쟁을 펼쳤으며, 그 결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완성도의 작품이 다수 접수됐다. 참여자들은 4분으로 제한된 분량 내 안전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했다. 신청 단계에서 제한 시간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지만, 이러한 제약이 오히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창의적 영상들

- 01 영상 공모전 대상(태광산업)
- 02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이수스페셜티케미컬)
- 03 영상 공모전 우수상(새울원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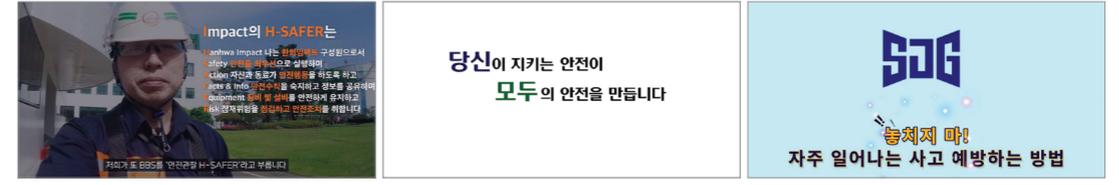
01



02



03



01

02

03

- 01 영상 공모전 장려상(한화임팩트)
- 02 영상 공모전 장려상(HD현대건설기계)
- 03 영상 공모전 입상(에스제이제종)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공모전의 역할과 비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이번 공모전은 울산 지역 내 안전문화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위 20개 작품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으며, 각종 안전 교육과 행사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영상들은 안전 교육 도구로서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참여 기업들도 자사 영상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명확히 공지했다.

울산 안실단은 이번 공모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주제를 더욱 다양화하고 울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모전 주제를 제조업, 조선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세분화하거나, 예비산업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영상은 안전문화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울산이라는 산업도시의 특징을 살려 대규모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안전한 산업도시 울산을 향한 지속 가능한 노력

울산 안실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울산이 안전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갔다. 공모전을 계기로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안전문화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다. 울산 안실단은 지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안전은 공유되고 전파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울산 안실단의 노력은 안전한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지역 대표기업들과 '안전 가치, 우리 같이'

양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양산 안실단)이 올해 고용노동부와 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기업들과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진행한 양산 안실단은, 사업장 경영진과 노동자들을 하나로 만들며 훈훈한 노사 분위기를 형성해가고 있다.

김해경전철에 밝은 분위기를 선물하다

민·관합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는 양산 안실단은 국민에게 친숙한 지역 대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안전 메시지를 노출시키고 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정착에 힘쓰고 있다.

우선 부산-김해경전철(주) 사례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의 적극적인 안전 문화 정착 움직임에 발맞춰 김해대학역 좌우측 계단에 안전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선보였다. 대중에게 노출되는 측면에서는 교통 분야 시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에서다. 당시 김해경전철 사장도 안실단의 노력에 호의적이었고,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양산 안실단은 경전철의 역사 내 햇빛이 들지 않은 공간은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느껴지는 점을 고려하여 칙칙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신경썼다.

01 김해경전철 업무협약 체결식



01

'이용객 동선 맞춤' 세이프티존 조성

계단을 걷어가는 데 있어 안전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구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큼지막한 그림을 위주로 시안을 잡았다. 또한 이동객들에게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 파란색 계열로 계단을 꾸몄다. 역사 내부의 계단 랩핑뿐 아니라 승강장(DID·행선안내기)과 전철 내부(DID 홍보영상)까지 안전 메시지가 펼쳐져있다. 김해대학역 자체를 '세이프티 존(Safety Zone)'으로 조성한 것이다.

그 결과 이동객들은 눈에 띄게 화사해진 역사 분위기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출퇴근 시간마다 안전문화에 한발 더 가까워지고 있다.

01 김해경전철 계단 안전메시지 게시

02 김해경전철 홍보영상 송출(역사 내)



01



02

포장박스 및 제품에 안전 문화 확산 메시지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며 역사부터 전철 내부에 이르는 입체적 안전 문화 홍보 활동을 추진한 양산 안실단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이다.

양산시에는 대형 사업장이 많지 않다. 유명 타이어 생산업체가 있다해도 타이어 포장지를 일반 소비자들이 볼 기회가 거의 없어 안전문화 홍보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롯데월푸드 양산공장 생산 제품 및 배송 차량에 안전 문구를 게시했다. 생산 제품(초코파이, 몽쉘) 포장박스에 '안전을 나르고 행복을 전하고' 문구를 넣고, 배송 차량 외부에 '교통법규와 작업안전수칙 우리 함께 지켜요' 메시지를 부착했다.



01

02

01 롯데웰푸드(주)양산공장 배송 차량 안전메시지
02 제품 포장박스 안전메시지

포장박스 및 제품에 안전 문화 확산 메시지

— CJ제일제당 양산공장 제품상자에는 ‘당신의 안전을 나릅니다’라는 안전 문화확산 문구를 넣어 배송 기사 및 소비자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했다. 코카콜라음료 양산에는 배송 차량 330대에 안전문화확산 문구(코카콜라 맛있다~! 안전수칙 지켜요! 안전한 대한민국!)를 부착했으며, 롯데칠성 양산공장 생산 제품(칠성사이다 멀티팩 포장 비닐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문구를 넣어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생활용품(식음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포장 박스나 제품에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를 인쇄토록 유도, 많은 국민이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01 CJ제일제당 양산공장 업무협약 체결식
02 제품 포장박스 안전메시지



01



02

포장박스 및 제품에 안전 문화 확산 메시지

—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미지, 예산 및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구속력 등 추진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득을 시도한 끝에 성취해 냈다.

01 코카콜라음료(주)양산 제품 배송 차량 안전메시지
02 제품 포장박스 안전메시지



01

02

경영자도 노동자도 안전으로 하나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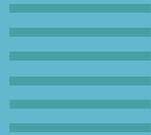
양산 안실단과 협업 중인 사업장들은, 일반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안전 관리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산 안실단은 이 점에 착안해, 회사들과 협약식을 진행할 때 몇몇 사(社)측 관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勞)측도 참여시켰다. 따라서 양산 안실단과의 협약식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 노사측 모두 팀장 이상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들이 전사적으로 안전 관리에 임한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됐다.

기업들과의 협업이 연말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양산 안실단은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활동에 대한 업무협약 기한을 연말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내년도 초에 협약 연장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양산 안실단은 희망적이다. 재충전한다는 느낌으로 내년에는 문구나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고 다른 기업과의 협약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그들은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지역 대표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소통채널 및 생산제품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 전개로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양산 안실단이 민간기업과 협업 사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권



대구

102

'원 소스 멀티 유즈' 콘텐츠 활용 극대화

107

대구지역 안실단 인터뷰 127
김선용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팀장

포항

108

영일만에서 울려 퍼진 안전문화



구미

111

고속도로 휴게소와 축제에 전해진 안전

영주

115

울창한 숲속 찾잔에 깃든 안전



안동

118

교육청과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원 소스 멀티 유즈' 콘텐츠 활용 극대화

대구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대구 안실단)은 출범 2년차를 맞아 산업현장과 대구시민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투트랙(Two-track)' 기조로 안전 문화 실천·추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구 서부지역의 경우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 Multi-Use)' 전략을 통한 콘텐츠 활용 극대화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시민과 산업현장,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 대구 안실단은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1차로 진행된 대구 엑스코(7월 18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산업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로 진행된 경북안전체험교육장(7~8월)에서는 사업주, 근로자 등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3차로 진행된 동대구역(7월 26일)에서는 행인, 근로자 등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 행사장 내·외부에 안전다짐 실천 서약 장소를 설치해 주체·계층별로 참여를 독려하고 산업안전(산업현장 관계자 등) 및 생활 속 안전(일반 시민 등) 전 분야에 걸쳐 안전다짐 서약서 작성을 적극 유도했다. 서약서를 작성한 후 나무에 매달아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안전다짐 희망나무'를 운영했다.

- 01 안전다짐 희망나무 실천서약 캠페인
- 02 1차 실천서약 캠페인(세미나현장)



01



02

대구시민과 산업현장,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티콘)을 제공했다.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도 2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1~3차까지의 행사에 세워진 안전다짐 희망 나무에는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전다짐이 가득 걸렸다.

- 01 2차 실천서약 캠페인(경북안전체험교육장)
- 02 3차 실천서약 캠페인(동대구역)



01



02

안전에 대한 사업주와시민의 인식 차이 투트랙 접근 '주목'

- 당시 서약서 작성을 진행했던 대구 안실단 관계자들은 투트랙으로 운영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다. 같은 캠페인을 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기에, 산업현장과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은 차이를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주나 관리자 등은 캠페인 참여와 함께 공단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나 갖가지 정보들을 추가로 요청했던 반면, 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실단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당장에 큰 사고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산업현장에 비해 일반 시민들은 안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다. 대구 안실단은 이 점에 착안해 시민들에게 좀더 와닿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4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행사에서 진행했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의식을 내재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 11일과 12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어린이 맞춤형 상품 가족 전체를 움직인다

-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산업·생활안전 O·X 퀴즈 및 안전네트 부스를 운영했다. 건설업·제조업·생활안전 등을 주제로 O·X 퀴즈를 진행했던 가운데, 정답자를 대상으로 돌림판 체험 기회 부여 후 홍보 물품을 지급했다. 포토 부스 외부에는 인화지를 통한 안전 문화 홍보 메시지를 노출시켜, 안전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확산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현장의 반응이다. 특히 퀴즈 상품으로 제공된 각종 캐릭터 연필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같이 온 가족들까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추후 대구 안실단은 대규모 행사 추진 시, 돌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담당자별 역할 분담 및 세부 계획을 더욱 명확히 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민 대상 안실단 홍보 활동 추진 시, 캠페인 본연의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안전 문화 확산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O·X 퀴즈(예)

1. (23년 기준)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유형은 **끼임**이다. (O, X)
※ 힌트 :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난간 및 비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 (23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평균 이하**이다. (O, X)
※ 힌트 : 사고사망만인율이란 상시근로자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3. (23년 기준) 추락사고는 3m 미만보다 **3m 이상 높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O, X)
4. (23년 기준) 산업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O, X)
※ 힌트 :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5. (23년 기준) 산업재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O, X)
※ 힌트 : 산업재해는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6. 회사 업무 중 **점심시간에 개인 업무**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이다. (O, X)
7. 폭염이란 여름철 통상 **33°C 이상**의 온도를 의미한다. (O, X)

- 01 2024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O·X 퀴즈 및 돌림판 물품지급)
- 02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홍보 부스



01



02

작업안전수칙 콘텐츠 제작·송출

- 더불어 대구 안실단은 작업안전수칙 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사고들을 기반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작업·업종을 선정, 이와 관련 작업안전수칙 영상을 만들었다.
- 1차로 지붕공사, 2차로 화물자동차, 3차로 끼임재해예방 작업안전수칙을 주제로 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관내 사망사고 재해의 60%(3명)를 차지하는 화물 운송업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각 주제별 작업 중 위험 요인 및 보호구 착용 등 작업안전수칙을 스토리보드(안)으로 편집한 후 6월부터 지역 방송사(푸른방송) 매체로 송출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와 유대관계가 돈독해졌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에 특성화된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

- 01 작업안전수칙 영상 1차 (지붕공사 작업안전수칙)
- 02 작업안전수칙 영상 2차 (화물자동차 작업안전수칙)
- 03 작업안전수칙 영상 3차 (끼임재해예방 작업안전수칙)



01



02



03

방송용 콘텐츠를 전광판에도 지자체 연대 강화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어렵사리 제작한 콘텐츠를 방송용 콘텐츠만으로 한정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그래서 대구 안실단은 기존 제작한 콘텐츠를 전광판과 유튜브 등에 최적화된 영상으로 만들었다.

예전에는 전광판에 일시적인 화면이나 연속 이미지로 송출했지만, 영상 콘텐츠가 많이 나오게 되니 이것을 전광판에도 활용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당 영상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및 산업안전 전광판에, 그것도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성서공단네거리, 계산오거리, 범어네거리)를 장식하게 됐다.

대구경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중에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엄청난 일이었다. 중대재해예방과와 협력을 통해 무상으로 전광판 송출,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이나 홍보쪽으로 연계를 강화하게 된 것은 덤이다.

01 전광판 작업안전수칙 콘텐츠



01

방송, 전광판 이어 유튜브에도 콘텐츠 활용 극대화

대구 안실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MZ세대 특유의 젊은 감각으로 유튜브에도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 유튜브용 2~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요즘 유행이 상당히 유행하니 그에 맞게 30초짜리 영상으로도 제작했다. 방송사와 전광판에 송출했으니, 이제는 온라인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다양한 종류의 매체로 가공해 제공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 Multi-Use)' 전략은 우수한 기획을 통해 제작된 1차 콘텐츠를 성장시킨 후 2차, 3차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하나의 소스로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안실단의 사례는 안전 문화 홍보에 힘쓰는 안전 관계자들에 한 줄기 큰 빛이 되고 있다.

interview



대구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안전문화 확산의 든든한 서포터

김선용 _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팀장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시행한 후 참여와 협력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고민하던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김선용 팀장은 대구지역 안실단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 속 안전 문화를 공공화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안실단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한 김선용 팀장은, 지난해 안실단 발대식부터 시작해 실무회의까지 참여하는 등 엄청난 열의를 보였다.

먼저 안실단의 캠페인이 안전을 자연스럽게 내재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개인 차원의 행동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이 가족과 직장 및 지역사회 등으로 확산돼 실질적 안전 의식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장소(동대구역사내뿐만 아니라,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온열질환 예방자료와 더불어 홍보 물품(생수, 부채 등)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이용객이 서로의 참여를 격려하는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안실단 활동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하되,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좀 더 매진할 계획"이라며 "안전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안실단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철도 교통 안전 공동캠페인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가·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실무회의와 성과 공유를 통해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개선점을 도출해가며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원활한 안실단 활동 홍보를 위해 역사 내 전광판을 이용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일만에서 올려 퍼진 안전문화

포항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포항 안실단)은 지역민은 물론 포항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색을 살려 포항시의 해변을 찾은 이들에게 안전문화 캠페인과 더불어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를 활용한 홍보로 안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철강 마라톤에서 알린 안전의 메시지

- 포항 안실단은 지역의 대표 행사인 철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안전 문화를 알렸다. 이번 마라톤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일터 안전에서 국민 안심으로’라는 문구가 담긴 손목 보호대를 배포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했다. 홍보물로 제공된 손목 보호대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안전문화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자리 잡았다.
- 3,000개의 홍보 물품은 행사 초반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안전문화를 알리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01 안전문화 홍보물품
(손목보호대)

02 마라톤 행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1



02

무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열정적인 캠페인

- 8월 31일 진행된 철강 마라톤은 늦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포항 안실단은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 행사장 곳곳에는 슬로건 피켓과 안전 문구 배너가 설치되어 관람객과 마라토너들에게 안전문화를 알렸다. 특히,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와 간단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캠페인의 흥미를 높였다.
- 참가자와 직접 소통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은 이번 캠페인의 큰 성과로 평가받았다. 마라톤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달리는 동안 손목 보호대에 적힌 문구를 보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01 마라톤 현장 홍보물 배포

02 안전문화 홍보 부스 운영



01



02

안전문화가 스며든 피서지 활동

- 철강 마라톤이 열린 영일대 해수욕장은 대회 이후에도 늦은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포항 안실단은 대회 이후에도 피서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안전문화가 스며든 피서지 활동

- 홍보부스에서는 안전 관련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며, 물놀이 안전 수칙과 응급처치 요령을 설명했다. 준비된 홍보 물품이 모두 소진된 후에도 슬로건이 적힌 피켓과 배너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 피서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01 영일대 해수욕장 안전문화 홍보 부스 운영



01

포항 안실단의 비전과 계획

포항 안실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규모 행사와 관광지를 활용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포항 안실단은 철강업 특성에 맞춘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포항을 안전 문화가 뿌리내린 모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신념으로, 포항 안실단은 영일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축제에 전해진 안전

경상북도의 경우 철도·항공 교통 대비 고속도로 이용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지역 도로 관리의 중심에 위치한 구미에서 구미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구미 안실단이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 중대재해 감축 ‘맞손’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간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기관장의 사회적 책임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데 뜻을 함께 했다. 양 기관의 홍보자원(시설·예산 등)을 활용, 안전 문화 확산에 손을 잡았다.
- 이를 토대로 기관 간 역할을 배분하고 협력 범위를 구체화시켰다. 한국 도로공사는 메시지 표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공단은 메시지 표출용 스티커·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부착했다. 홍보물 부착

01 칠곡휴게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완료 후 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고객 대상

02 안전문화 홍보 물품 배포

안전 문화 확산을 추진했다.



01



02

**안전보건공단 ·
한국도로공사,
중대재해 감축
‘맞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의 고속도로 기반 인프라(휴게소·전광판 등)를 활용해 안전문화 메시지(교통안전과 산업안전이 조화될 수 있는 메시지를 표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안전 문화(산업안전, 교통안전) 메시지 표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후 군위 휴게소, 현풍 휴게소, 외동 휴게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5월 21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경부선 칠곡휴게소(서울방향)에서 작업장 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휴게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일터에서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도 함께 당부하면서 물과 물티슈 등을 배포했다. 지난 4월부터 칠곡휴게소(양방향) 계단, 흡연부스, 야외현수막 게시대 등에 현수막, 스티커 등 안전 문화 홍보물을 부착·게시했고 고속도로 전광판(VMS)을 이용해 안전 문화 메시지를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표출하고 있다.



01



02

01 칠곡휴게소 안전메시지 현수막 부착
02 휴게소 계단 안전메시지 부착

**안전보건공단 ·
한국도로공사
협업**

9월 23일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군위휴게소에서 대시민·운수업 종사자의 산재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운수(화물)업 종사자 대상 산업안전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뤄진 이날 캠페인은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위휴게소 계단, 기둥, 화장실, 현수막 게시대에 산업안전 및 교통안전 메시지 표출용 홍보물을 제작·부착하는 등 다수 시민(근로자) 대상 광범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꾸준한 합동
캠페인으로
이어져**

9월 26일 구미 안실단 참여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은 지역사회 안전 인식 제고 및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위해 경북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경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참여했다.

‘안전으로 여는 오늘, 행복으로 가는 내일’을 주제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응급처치구급함과 함께 태풍·호우·지진 등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렸으며,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리플렛을 배부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계도했다.

01 한국전력기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2 홍보 물품 배포 및 안전수칙 안내



01

02

구미라면축제에도 퍼진 안전 메시지

11월 1일에는 구미시 노동복지과와 '2024 구미라면축제' 현장에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 구미라면축제의 경우 15만 명이상이 참가하는 등 구미지역의 대표 산업관광 축제로 도약한 상태다.

이날 구미 안실단은 안전 문화 슬로건 현수막 및 어깨띠, X배너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을 홍보했다.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자료(안전보건 OPL 자료) 및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중점 추진했다.

구미 안실단은 지역 대표 축제인 구미라면축제와 연계해 다수 시민에게 산업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산업 안전 현황 및 이슈에 대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다.

01 구미라면축제
안전문화 홍보 부스

02 홍보물품 배포 등 캠페인



01



02

구미 안실단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할 구역 대비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의 상황에 맞춰, 타지역 안실단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권 안실단과 협업 캠페인을 실시해 더욱 효율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던 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지역 대표기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산업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 축제와도 연계해 안전 메시지 확산에 힘쓰고 있는 구미 안실단의 내년 행보가 더욱 기대를 받고 있다.

울창한 숲속 찾잔에 깃든 안전

산림면적 비중이 높은 경상북도에서 영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영주 안실단)은 입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축제 릴레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연계해, 정부나 기관 중심의 활동을 넘어 안실단 참여기관의 자발적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업주 대상 지원 사업 안내 “농쳤던 혜택 발견”

축제가 열렸던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산업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던 가운데, 사업주 대상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주제로 산업안전과 직접 연관된 OPL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보조사업, 용자,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안내했다. 부스에 참가했던 사업주 관리자들은 생각보다 혜택 대상이 다양하고, 폭도 넓어서 놀랐다는 반응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건설현장 사고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관리자들의 경우 일일이 점검하기 힘든 면이 있다.

01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산업안전 캠페인

02 홍보 부스 캠페인 운영



01



02

시민 대상 체험 이벤트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영주 안실단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슬로건 등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보호구 착용 이벤트를 통해 행사 참여도를 높였다.
올바른 보호구 착용 이벤트 시 올바르지 않은 사례를 담은 사진을 보고 시민들은 적잖이 놀랐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 비슷한 에피소드를 추가로 설명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다. 현장 점검을 가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고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난간도 없는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대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면, 그제야 주섬주섬 챙겨입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이에 영주 안실단은 홍보부스 운영 사업주들에게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직접 배포함으로써 공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더불어, 일반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안전보건공단 및 안실단에 대한 인식도를 향상 시키고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임업 비중 높은 영주시 재해예방 위해 ‘잔걸음’

- 지난해 3월 17일 영주지역 안실단 발대식을 열어 영주시 관내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다짐했다. 일률적인 규제를 넘어 지역의 산업 특성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중이다.
경북지역의 산림 면적은 전국 산림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전국 지자체 중 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주시의 경우 임업의 비율이 높은 만큼 임업 사고사망자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은 사고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또 임업 현장은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처럼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영주 안실단은 임업 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산림산업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임업 비중 높은 영주시 재해예방 위해 ‘잔걸음’

- 영주 안실단은 발대식을 연지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2일 지역 행사인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존의 안전문화 슬로건이 아닌, 행사 특성에 맞는 슬로건(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 안전한 완주를 기원합니다!) 함께하는 산재예방, 안전한 대한민국을 담아 제작한 스포츠 타월을 배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 01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 안전문화 홍보 부스
- 02 슬로건 스포츠 타월



01



02

지역축제 적극 참여 시민과 점점 마련

10월 13일에는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에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안전문화 슬로건 현수막, 홍보 물품, X배너, 아끼띠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준비해 안전문화 실천을 홍보했다.

올바른 보호구 착용 이벤트 및 산림산업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에 참여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며 안전문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주 안실단의 추후 행보가 기대를 받고 있다.

교육청과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문화와 교육을 위시한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강한 경북 안동시에서, 안동지역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이하 안동 안실단)이 교육청 협업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기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중심의 '관' 중심 활동에서 나아가 참여기관의 자발적 활동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함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동 안실단은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도청,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 및 정신문화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도시의 특성에 맞춰, 교육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안전 문화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 교육 현장 현업업무 종사자들은 일반 교육 공무원과 달리, 각종 분야에서 관리 업무가 많아 업무 시 사고사망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동 안실단은 경북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했다.

01 담당 공무원 안전문화 의식 향상 교육

02 급식종사자 겨울방학 중 정기 안전보건교육



01



02

경북교육청과 함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01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경북교육청은 교육 대상 및 커리큘럼 등을 확정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우수 강사를 섭외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업업무 종사자(영양교사, 조리원 등) 및 관리감독자(학교장) 중심 교육을 통해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01

어려움 극복, 이어진 교육 고도화

- 하지만 이러한 교육 효과를 위해서는 시작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먼저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경우 다양한 직종이 혼재하며 교내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극복해야 할 것이 많았고, 각자 업무도 많은데 굳이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총 51회의 교육을 진행, 약 1만1,000명의 교육생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계층별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고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역지자체와도 협업지역 밀착형 홍보에도 힘써

- 안동 안실단은 경북도청과 협업해 도내 기초 지자체에 안전 문화를 전파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경북 도내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광역지자체와도 협업 지역 밀착형 홍보에도 힘써

—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전광판에 안전 문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의 안전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 안동에서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옥동 사거리 인근의 음식점 카페를 직접 찾아가 안전 문화 확산 슬로건 스티커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안전 문화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축제와 같은 지역밀착형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역축제 릴레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연계해, 버스 운영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4대 금지 캠페인 등 산업안전과 직접 연관된 자료를 배포했다. 안전문화 슬로건을 개발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등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했다.

- 0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02 안전문화 홍보 활동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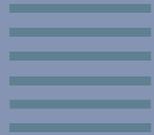
안실단 인지도 상승 주력 지역기업과 협업도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난해와 올해 상당히 많이 활동했음에도 생각보다 안실단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것. 보다 더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느낀 안동 안실단 관계자는 사업주들에게 더욱 와닿는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제작한 후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더욱 널리 배포함으로써, 공단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으로도 안실단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들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실제로 올해 안동에서 손꼽히는 바이오 기업과 음료 기업을 안실단 멤버로 추가했다. 음료 기업의 경우 자체 생산하는 음료에 안전 문구를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공장장까지 승낙했는데 대표가 다음 기회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안동 안실단 관계자는 당장 올해는 아니었지만, 공장 생산 제품에 안전 문구 부착이 성사 직전까지만 것에 상당히 고무됐다.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안실단 참여 기업들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4 중부권



인천 124

안전모 착용부터 시작!
모두가 실천하는 안전 약속!

127

인천지역 안실단 인터뷰
정진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환경팀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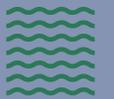
부천 128

Do-드림(Dream),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화의 시작



의정부 131

'열린 조직문화' 기반 공모,
지난해 대비 1000% 넘게 참여



고양 134

안전 곁에 두고(Do-Go),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

안전모 착용부터 시작! 모두가 실천하는 안전 약속!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며, 일상에서의 실천이 그 출발점이다. 인천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인천 안실단)은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체험형 캠페인과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Do 해요!’와 폭염 대응 캠페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전모Do 해요!’ 캠페인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시민 안전문화 체험 축제’는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한 장이 되었다. 이 중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안전모Do 해요’ 캠페인으로, 추락재해 예방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됐다. 안전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은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심어주었다.

참가자들은 캠페인 부스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찍은 인생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안전모 착용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혔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가족 단위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안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01 인천시민안전문화체험 축제 안전모 착용 인생네컷 촬영 부스
- 02 인천시민안전문화체험 축제 안전모 착용 체험



01

02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안전모Do 해요’ 캠페인 부스에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안전퀴즈, 안전다짐 메시지 작성, 안전 2행시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안전보호구 관련 퀴즈를 통해 시민들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귀마개의 용도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안전다짐 메시지 작성 코너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안전에 대한 다짐을 적으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안전롤렛 이벤트는 롤렛을 돌려 나온 항목에 따라 안전다짐을 작성하거나 퀴즈를 풀어 소정의 기념품을 받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체험의 재미를 더했다. 기념품으로 제공된 돗자리와 비눗방울, 음료수 등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서식품과 협업으로 제공된 커피 음료도 행사 참여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 01 인천시민안전문화체험 축제 안전롤렛 이벤트 운영
- 02 인천시민안전문화체험 축제 안전퀴즈 운영



01

02

특히, 올해는 인천 안실단의 신규 참여기업인 인천교통공사와의 협업으로 지하철 화재 시 마스크 사용법과 비상스위치 조작법, 소화기 체험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의 다채로움을 더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지식을 전달했다.

이번 축제에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 등 300여 명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03 인천교통공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03

폭염 속 현장을 지키다

- 01 현대건설 폭염 대응 캠페인
- 02 온열질환 예방 커피차 운영

- 6월 26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건설 현장에서 폭염 대응 캠페인이 진행됐다. 근로자들에게 폭염에 대비한 ‘물, 그늘, 휴식’의 중요성을 알리며, 점심시간에는 커피차를 운영해 시원한 음료와 부채를 제공했다. 또 현장에는 폭염 위험표지판 부착 현수막 홍보로 근로자들이 폭염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했다.
- 이 행사에는 인천 북부 지청장이 참석해 현장 관리자들에게 근로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은 커피차와 부채를 통해 휴식을 즐기며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캠페인은 인천검단지역 안전관리자 협의체와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근로자들과 관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



01



02

현장 중심의 협업

인천 안실단은 금년도 캠페인들을 통해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공동의 안전문화 확산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인천교통공사와의 ‘안전모Do 해요’ 캠페인의 협업은 시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체험을 제공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실단의 참여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terview



인천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글로벌 랩티어를 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안전 경영 비전

정진용 _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환경팀 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체계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3차례에 걸쳐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바이오 업계 전반의 안전문화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GC 녹십자를 포함한 총 11개의 바이오사가 참여하는 이 포럼은 안전보건 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진용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로는 “바이오 업계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바이오 기업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이용 수칙 계몽 활동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고용노동부 중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개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부적으로도 사고 예방 체계 혁신과 위험 표준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는 아직 안전 기준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을 세부 단위로 나누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절차서를 수립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위험 작업 6개와 13개의 세부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개발하며 안전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정진용 프로는 “바이오 업계 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건의 사항과 질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통은 안전을 넘어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Do-드림(Dream),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화의 시작

부천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부천 안실단)은 지역 내 산업 특성에 맞춘 배달업 종사자 대상 안전 캠페인, 국제 영화제와 연계한 시민 체험형 홍보, 그리고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Do-드림(Dream) 감성 안전문화'라는 슬로건 아래 배달업 산업재해 예방 공모전과 생활 밀착형 안전 메시지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활동은 부천 안실단이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택배업 안전을 위한 감성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 01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홍보 포스터
- 02 공모전 시상식



01



02

부천 안실단은 2024년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Do-드림(Dream) 감성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했다. 배달업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근로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표였다.

'Do-드림'이라는 슬로건은 '실행력'을 의미하는 'Do'와 근로자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뜻의 'Dream'을 결합한 표현으로, 근로자와 시민이 안전문화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택배업 안전을 위한 감성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안전 라이더 공모전'을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했다. 총 208건의 응모작이 접수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대상작인 '리뷰 이벤트: 안전도 꼭 배달해주세요'는 택배업 종사자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천 안실단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 안전문화 홍보물(발열조끼) 제품박스에 부착하여 배포하였다. 향후에도 배달업 종사자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01 캐치프레이즈 활용 홍보물 (방한용품 발열조끼)
- 02 제품박스 부착 슬로건



02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속 안전문화 홍보

- 03 부천국제판타스틱 안전문화 홍보 부스 전경
- 04 부천국제판타스틱 안전문화 홍보 부스 운영

부천 안실단은 부천시와 협력해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 동안 안전문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 영화제는 부천시의 대표 축제로, 국내외 관람객이 다수 방문하는 행사다. 부천 안실단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운영된 부스에서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과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관람객들에게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03



04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속 안전문화 홍보

지역 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영화제를 즐기는 동시에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부천 안실단은 대규모 행사를 활용해 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부천 안실단은 지역 특산물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제품에 안전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부천 막걸리, 한양 전통식품(식혜), 유산균 제조업체 셀바이오텍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가 해당 제품에 부착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01 제품 안전메시지 부착 김포시 부천막걸리
- 02 한양전통식품 식혜
- 03 (주)셀바이오텍 유산균

01

02

03

이번 협업은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안전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부천 안실단은 이러한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부천과 김포 지역을 넘어 경기중부 전역으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역 내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천 안실단의 'Do-드림 감성 안전문화' 캠페인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으로 근로자와 시민 모두에게 안전문화를 친숙하게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천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열린 조직문화' 기반 공모, 지난해 대비 1000% 넘게 참여

지난해 공모전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점을 거울삼아 올해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의정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의정부 안실단)의 '차별화된 활동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 노출도 증대를 위한 세밀한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방된 조직문화를 통해 우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참여 인원 증대 위해

공모전 내용 변경

- 의정부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를 중심으로 6월 14일까지 경기북부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했다.
- 경기북부지역(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포천·연천·철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 학생,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20자 이내의 캐치프레이즈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 01 안전문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포스터
- 02 공모전 신문 광고
- 03 공모전 버스 광고



01

02

03

105개→1070개 상상을 초월했던 공모전 참여

— 지난해 공모전보다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가 수월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으로 변경한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됐다.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에 무려 1,070개가 접수되며 지난해 105개에 비해 참여 인원이 약 1,019%나 증가했다.

하지만 단순히 공모전 형식만 바뀌어서는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가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도출됐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기획’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열린 조직문화’였다. 의정부 안실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시행에 있어 중요 포인트를 ‘노출도 증대’로 보고 이를 극대화하기에 힘썼다.

시민 노출도 증대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 구사

— 아무리 좋은 취지고 기획이 좋아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본 의정부 안실단은 부장 및 부서원들과 충분한 회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홍보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내부적으로 ▲공단·지사 홈페이지 내 포스터 게시 ▲공단 월간지 및 SNS(블로그, 카드뉴스, 페이스북) 활용 ▲전광판(의정부시 녹양동) 홍보를 진행했다.

— 그다음 외부적으로 ▲관내 8개 시·군 홈페이지 및 월간지 광고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방문·홍보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및 고용노동부 관련 공공기관 방문·홍보 ▲공모전 사이트 게시 ▲홍보 및 관련 교육 시 활용 가능한 PPT 준비 ▲버스 광고(1-1, 5, 7, 72번) ▲신문광고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활용했다.

- 01 대상 수상 캐치프레이즈 활용 부직포 가방 시안
- 02 현수막 시안
- 03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시상식



안전문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수상작

구분	소속	캐치프레이즈	상장
대상	개인	안전은 꼭꼭! 위험은 뽕뽕!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상
최우수상	개인	안전은 나를 염려하는 엄마의 맘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상
	개인	안전은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개인	안전은 지키고 방심은 버리고	
우수상	우호건설(주)	안전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상
	개인	안전은 행복의 터전, 안전한 경기북부!	
	빙그레(주) 남양주공장	안전은 오늘과 미래 행복의 시작이다.	
	개인	안전은 행복에 앞장서는 최일선 울타리입니다	
	개인	안전은 현장의 정신, 실천은 경기북부의 혁신	
	SM경남기업	안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열린 조직문화 위기 상황 유연한 대응으로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조직문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의정부 안실단의 경우 안전 문화 파트에 오래 근무했던 실무자가 책임자로 나서, ‘열심히 하고자’ 하면 정말 ‘열심히 밀어줬던’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회의가 절대 무겁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최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어난 상태로 회의하는 ‘스탠딩 회의’ 문화를 통해 획기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회의 문화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상했던 인원보다 너무 많은 물량이 접수돼 해당 물량을 심사위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하자, 타 부서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1차 심사에서 50개를 선정해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 적절한 물량으로 줄였다.

기본 계획부터 홍보까지 자격 제한경기북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재을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의 약 10%가 비(비) 대상자로 행정 낭비가 심했던 점을 거울삼아, 내년도 공모전 진행 시에는 사전에 참여 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의 수고를 덜겠다는 의지다. 기존의 부족했던 점들을 차별화된 기획과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힘으로 극복하고, 획기적인 결과를 창출해 낸 의정부 안실단의 모습이 ‘혁신’의 실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안전 곁에 두고(Do-Go),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

고양파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고양파주 안실단)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곁에 두고(Do-Go)'라는 주제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위험표지판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 생활 속으로 스며든 안전 캠페인

고양파주 안실단은 'Do-Go'라는 이름을 통해 안전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Do-Go'라는 캠페인 이름은 안전 장비를 항상 곁에 두고 작업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네이밍은 짧고 직관적인 표현으로 근로자와 시민 모두에게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01 안전곁에Do-Go캠페인
위험표지판(킨텍스)

01

시민 생활 속으로 스며든 안전 캠페인

— 캠페인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다섯 곳에 위험 표지판과 포토존을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설치 장소 선정은 시민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덕양구청, 킨텍스, 마장호수 등은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장소로, 각 장소는 특성에 따라 다른 캠페인 콘셉트를 적용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여와 공감으로 성장한 캠페인

—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위험표지판의 의미를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포토존에서는 시민들이 위험표지판 안에서 사진을 찍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위험표지판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시민들이 많았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험표지판이 지닌 의미를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로 장소를 옮겨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01 안전곁에Do-Go캠페인
위험표지판(운정행복센터)

01

참여와 공감으로
성장한 캠페인

— 시민들은 안전문화 메시지를 담은 기념품과 간단한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캠페인에는 총 302명의 시민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 200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01 안전걸에Do-Go캠페인 위험표지판(마장호수)
- 02 안전걸에Do-Go캠페인 위험표지판(화정광장)
- 03 안전걸에Do-Go캠페인 위험표지판(킨텍스)



01



02

03

지역사회
협력으로 이룬
안전문화 확산

- 고양파주 안실단은 현장 근로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안전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킨텍스와 경기인력개발원 등에서는 위험표지판 전시와 안전보건 체험 활동을 병행해 근로자와 예비산업인력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7월과 8월에는 고양파주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 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용노동부, 고양시청, 파주시청 등 지역 기관이 장소 선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킨텍스와 마장호수 관리 기관은 장소 제공과 홍보 지원을 통해 캠페인의 성공적인 진행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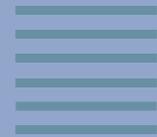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다

고양파주 안실단은 '안전 걸에 두고(Do-Go)'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안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예비 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위험표지판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양파주 안실단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5

경기권



경기 140

경기마라톤과 함께한
안전의 한 걸음

145

경기지역 안실단 인터뷰
최광범 화성노사민정협의회 국장

안양 146

지역 기업과 스포츠,
참여로 완성된 캠페인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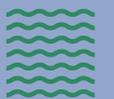
안산 150

글로벌 안전도시를 향한
발걸음



성남 153

안전을 향한 마음,
언어의 장벽을 넘다



평택 156

다양성에서 찾은 해답,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한 안전문화

22

경 기

경기마라톤과 함께한 안전의 한 걸음

경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경기안실단은 경기 지역 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마라톤과 같은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를 활용한 것은 물론 뉴미디어인 숏폼 영상을 활용한 새로운 확산 방식은 안전문화를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려는 안실단의 노력을 잘 보여줬다.

경기마라톤으로 퍼진 안전문화의 메시지

경기 안실단은 4월 21일 열린 경기마라톤에서 대회 주최기관인 '경기일보'와 협력해 안전문화를 널리 알렸다. 수원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번 마라톤 대회는 안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수원 종합운동장 대형 전광판에는 공단 캠페인 영상이 송출되었고, 관중석에는 슬로건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특히 안실단 단원들은 '위험하기 전에 안전하세요' 라는 슬로건이 삽입 된 풍선을 달고 직접 마라톤에 참여하여, 눈에 띄는 시각적 효과를 연출했다. 단순한 부스 운영을 넘어 시민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 01 경기마라톤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 02 마라톤 슬로건 풍선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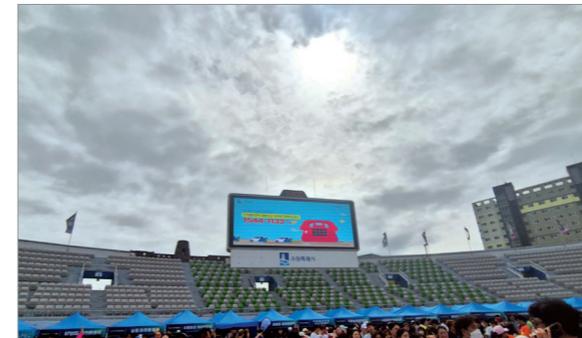


02

경기마라톤으로 퍼진 안전문화의 메시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한 마라톤 참가자는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안전 메시지까지 접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고,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보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으며, 이전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 01 경기마라톤 현장 전광판 광고
- 02 마라톤 러너 슬로건 풍선



01



02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경기 안실단은 산업현장을 넘어 일반 시민에게도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9월 30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환상의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로' 캠페인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전문화를 체험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들과 부모는 안전모 착용법을 배우며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어서와, 안전모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고른 안전모를 쓰고 즐거워하며, 안전의 필요성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03 에버랜드 안전문화 캠페인
- 04 어린이 안전모 착용 교육



03



04

뉴미디어와 결합한 안전문화 홍보

경기 안실단은 전통적인 캠페인 방식에서 나아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작한 산재예방 슷폼 3종과 기획보도 5종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네이버TV를 통해 배포된 ‘산업안전 대진단’과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영상은 각각 1.3만 회와 1.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기일보의 구독자 수를 넘어서는 조회수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안전문화 확산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 01 산업안전대진단 “내 일터가 안전한지 궁금하다면?” 슷폼
- 02 산업안전대진단 “추락, 충돌, 끼임에는 위험표지판 부착!” 슷폼
- 03 산재예방 기획보도



01



02



03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 골든벨

8월 28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골든벨’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산업재해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안전 골든벨에서는 삽화와 간단한 문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해 언어적 장벽을 줄였으며, 영어구사가 가능한 전문 MC가 진행을 맡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문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출제돼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제공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우수작은 산업현장에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국적별 참여자수

연번	국적	참여자수(명)	비율(%)	연번	국적	참여자수(명)	비율(%)
1	중국	89	60.5	5	캄보디아	5	3.4
2	미얀마	17	11.6	6	우즈베키스탄	4	2.7
3	베트남	12	8.2	7	스리랑카	3	2.0
4	태국	12	8.2	8	기타*	5	3.5

* 나이지리아, 러시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각 1명

01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골든벨 현장



01





01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골든벨 현장
02 골든벨 시상식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

경기 안실단의 올해 활동은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 가족 캠페인, 뉴미디어 활용, 외국인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경기 안실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캠페인을 확대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문화 활동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의 범위를 넓히며,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이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은 습관이자 문화’라는 신념 아래, 경기지역 전역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경기 안실단의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interview

경기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산업안전과 노동법 인식 제고를 위한 노사민정의 힘찬 행보



최광범 _ 화성노사민정협의회 국장

화성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최광범 국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화성시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건설 수요로 인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산업안전과 노동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캠페인을 시작으로 뱃놀이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화성시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법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화성노사민정협의회는 안실단과 협력해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협의회외의 또 다른 핵심 활동 중 하나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6,773건의 현장 점검과 2만5,273건의 개선 요청, 그리고 2만3,670건의 개선 완료를 기록하며 지역 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했다. 최광범 국장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인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2023년 인근 지자체 7개 기관과 경기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을 넘어 광역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공공지원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며 지역 내 노동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9,000부 이상의 노동법·산업안전 책자를 제작·배포하며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광범 국장은 “화성시 3Zero 캠페인(차별·격차사고 제로화)은 우리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과 스포츠, 참여로 완성된 캠페인의 힘

안양은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해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다양한 시민층이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양안실단)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스포츠, 기업체, 지역 축제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FC 안양과의 협업과 지역 축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안전문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축구 경기장에서 안전 메시지를 심다

5월 15일, FC안양 축구구단의 홈구장에서 특별한 안전문화 캠페인이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약 2,858명의 관중이 현장에서 이를 체험했다.

01 FC 안양 축구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01

01 경기장 내 현수막 게시

02 전광판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홍보영상 송출

01



02

관객 참여를 이끈 실천 다짐 프로그램

'안전 실천 다짐 메시지 남기기' 프로그램은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코너 중 하나였다. 고용노동부의 마스코트 '고드래곤'은 어린이 관중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사진 촬영과 선물 증정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다. 관객들은 자신만의 안전 다짐을 직접 작성해 부스에 부착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메시지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자녀와 함께 메시지를 작성하며,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했다.

03 안전실천 다짐 메시지 남기기
프로그램

03



**관객 참여를 이끈
실천 다짐 프로그램**

— 작성된 메시지는 부스 벽을 가득 채우며 행사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다짐을 읽는 관객들은 서로의 다짐에서 영감을 얻으며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지역기업과의
협업으로
풍성해진 캠페인**

— FC안양 구단은 경기장 내 안전문화 캠페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구단은 광고비용 없이 경기장 내 현수막 설치를 허용해 안전 메시지를 경기 시즌 내내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경기장과 TV 중계 화면에 노출된 메시지는 관중과 시청자 모두에게 안전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구단은 현수막 설치와 전광판 송출 외에도 홍보 부스 운영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구단 안전팀과의 협력을 통해 관중 안전과 시민 의식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 또한, 안양 안실단은 지역기업 GS파워와 협력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한층 높였다. GS파워는 물병, 장바구니, 손 세정제 등 실용적인 홍보물을 제작해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며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들 홍보물은 행사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며 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GS파워와 같은 지역 기업의 후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01 안전문화 확산 홍보물품



01

**축축제에서도
빛난 안전 캠페인**

—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 축축제에서는 VR 체험교육과 안전보호구 전시, 안전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특히, VR 체험교육은 참가자들에게 실제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를 생생히 전달했고, 참가자들은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을 체감하고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식을 새롭게 다졌다.



01



02

01 안전실천 다짐문구 작성
02 다짐문구 부착하는 어린이

— 이 밖에도 안전퀴즈와 체험 부스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안양 안실단의 도전

안양 안실단은 스포츠, 기업체, 지역 축제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FC 안양과의 협업은 스포츠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GS파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안양 축축제에서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안양 안실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안전 실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안전도시를 향한 발걸음

안산은 반월·시화·MTV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산재취약계층 안전의식 수준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산안실단)은 체험형 교육, 포럼,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며, 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안산의 산업현장 과제

5월 18일,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 그리고 MTV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안산 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재해율로 인해 안전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시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마련됐다.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인 VR 체험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180명이 참여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체험자들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지게차 사고와 추락 재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01 안전문화 확산 홍보 부스
02 퀴즈 이벤트 참여



01



02

01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홍보 부스 VR 체험존
02 VR 체험 현장



01



02

— 체험 이후 진행된 안전수칙 준수 교육은 근로자들에게 일상 업무에서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안전보건과 건강관리의 결합

0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홍보 부스
건강 상담
04 보호구 전시 및 착용 체험



03



04

— 축제 현장에서는 산업안전과 건강관리가 결합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방독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전시하며 유독물질 노출과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보호구를 직접 착용해보며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가 주관한 건강 상담 코너에서는 혈압, 체지방 분석, 골밀도 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병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퀴즈 이벤트와 다짐 메시지 작성

— 안산 안실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주제로 퀴즈 이벤트와 안전실천 다짐 메시지 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퀴즈 이벤트는 참가자들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점검하고, 안전문화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했다.



01 퀴즈 이벤트 포스터

안산·시흥 안전보건포럼 발대식

02 공동 선언문 낭독

03 우수사례 발표

— 안전보호구 체험 부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을 얻으며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홍보했다. 방독면, 보호구 등의 장비를 직접 착용해보는 체험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다. 안전실천 다짐 메시지 작성 코너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QR 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퀴즈가 일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층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이에 따라 향후에는 영문 번역 및 직관적인 OX 퀴즈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4월 19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안전보건포럼 발대식은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대식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공동선언문 낭독이 이루어지며,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포럼은 발대식에 그치지 않고 예비 산업인력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어졌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 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02



03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글로벌 안전도시

안산 안실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으로 향하는 근로자들에게 산재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출근버스 내에 안전문구를 부착해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 안실단은 앞으로 VR 체험, 건강 상담, 안전보건포럼 등 기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며 글로벌 안전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안전을 향한 마음, 언어의 장벽을 넘다

성남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성남 안실단은 유통부터 IT까지 다양한 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표 산업도시로서 2024년 활동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한 다문화 축제 캠페인

- 성남 안실단은 5월 12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광주 다문화 축제’를 캠페인 장소로 선정해 안전문화를 알렸다. 이 축제는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안전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 안실단은 안전보건공단의 다국어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해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01 광주 다문화 축제 안전문화 홍보 부스



01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한 다문화 축제 캠페인

01 광주 다문화 축제 현장



01

현장 중심 교육으로 효과 극대화

02 광주 다문화 축제 안전문화
홍보 부스 교육 운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단순한 강의식 전달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영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끼임 사고, 추락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사례를 보여주며 재해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작업 환경에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LOTO(Lock Out, Tag Out) 미설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를 담은 영상은 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 교육 이후 일부 근로자들은 “교육을 받고 나니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점검과 절차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



02



03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삽화와 간단한 문구를 중심으로 안전수칙을 설명했으며, 통역 봉사자가 현장에서 도움을 제공해 소통의 원활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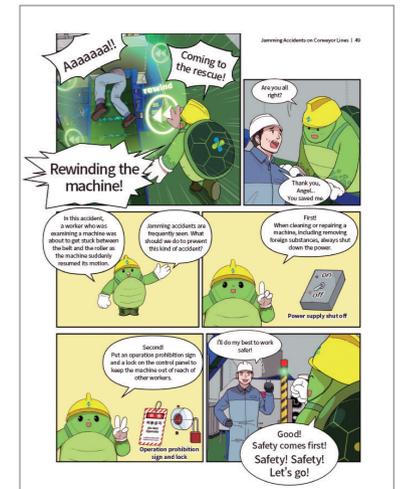
이 같은 노력은 근로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통해 캠페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중심 교육으로 효과 극대화

01 안전 패트를 안젤이가 간다-영어

Contents	
02	Work Safety in Roof Construction
06	Work Safety in Thawing Season
10	If I could turn back time...
14	Mobile crane tipping accidents
18	Suffocation accidents in confined spaces
22	Fall accidents while working on hanging sc
26	Forklift collision accidents at ports
30	Mobile ladder accidents
34	Fall accidents during elevator replacement
38	Fall accidents during roof repair work
42	Fall accidents while working on truck cargo
46	Jamming accidents on conveyor lines

01



사업주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잇는 안전문화의 미래

성남 안실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다국어로 제작된 안전자료와 사례 기반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안전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고 있다. 성남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근로 환경에서도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성남 안실단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주체인 사업주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연간 2,000명 이상의 사업주가 교육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은 단순한 법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다루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참여한 한 사업주는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소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양성에서 찾은 해답,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한 안전문화

평택은 반도체 산업과 대규모 건설 현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평택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평택 안실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문화 축제에서의 체험 프로그램부터 건설업 협의체와의 협력까지, 평택 안실단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문화 축제에서 빛난 안전문화 체험

01 내리 다문화축제
VR체험 부스

평택 안실단은 지난 9월 28일 안성시 대덕면에서 열린 '내리 다문화 축제'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안전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축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획된 행사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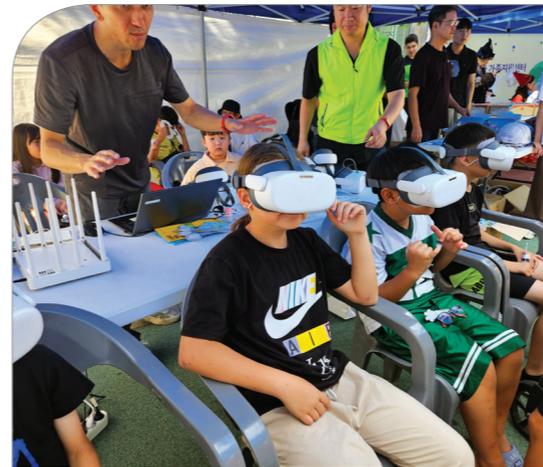
01

다문화 축제에서 빛난 안전문화 체험

01 내리 다문화축제 VR체험
02 내리 다문화축제 안전모 체험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인 VR 체험은 건설 현장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현실로 재현하여, 참여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VR 체험을 통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했고, 언어의 장벽 없이 시각적인 체험을 통해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가 제공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어린이 대상 안전 콘텐츠와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비눗방울 놀이 등 흥미를 유도하는 요소들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전모 착용 시연과 놀이형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며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부모와 함께한 체험은 온 가족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



01



0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여름철 캠페인

8월 9일, 평택복합휴게소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다. 평택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주)에이치케이하이웨이와 협력해 폭염 속 건강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방문객들에게 생수와 부채, 물티슈를 배포했다. 휴게소를 찾은 약 1,000여 명의 방문객은 캠페인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방법을 배웠다.



01



02



03



04

- 01 평택복합휴게소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 02 평택복합휴게소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 03 평택복합휴게소 안전사진관 운영
- 04 안젤이 안전문화 홍보

건설업 협의체와의 협력

— 평택 안실단은 지역 건설업 안전관리자 협의체와 협력해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5월 21일, 경기남부지사 담당자와 협의체 운영진 등 12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사망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건설업 협의체와의 협력

- 주요 내용으로는 동종 공사 간 합동 점검, 우수 사례 벤치마킹,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자료 제공, 작업별 안전 절차서 게시 등이 포함됐다.
- 협의체는 실천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게시물을 제작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용 밴드를 통해 안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는 이러한 협력은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안실단과 협의체는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01 건설업 협의체 운영진 간담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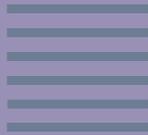


미래를 향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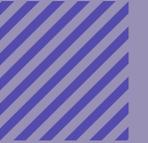
평택 안실단은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미축제, 평택 아시안게임 등 대형 행사에 참여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문화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통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6

광주권



- 광주 162 민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 광주 자율안전협의체의 도전
- 165 광주지역 안실단 인터뷰
이성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그룹장
- 전주 166 협업 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안전문화 확산
- 익산 170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강령 우수사례집
- 군산 173 한여름보다 뜨거운 열정,
건강과 안전을 향한 약속
- 목포 176 섬과 도시를 잇는
맞춤형 안전 실천의 다리
- 여수 180 근로자부터 관광객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 혁신
- 제주 184 듣기만 해도 설레는 제주(JEJU),
안전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민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 광주 자율안전협의체의 도전

광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광주 안실단)은 자율안전협의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업체, 소규모 사업장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월 진행되는 합동 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캠페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광주 안실단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조명한다.

제조업 자율안전협의체, 협력의 힘으로 안전문화 확산

— 광주 제조업 자율안전협의체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출범했다. 발대식을 통해 협력사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협의체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세방전지, 금호타이어, LG화학 등 5대 기업과 협력사 68개사가 참여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의체는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점검을 통해 도출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안전문화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파되며, 산업재해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모기업-협력사 상생 협력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각 참여 기관들이 연중 지속적인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각 사업장이 직면한 주요 안전 이슈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의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은 소규모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협의체 구성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01

01 제조업 자율안전협의체 발대식



02

02 안전보건활동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 지난 10월 16일,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제조업 자율안전협의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협의체 회원사 중 선정된 5개 협력사가 참여하여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서는 뉴서광(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접근’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주)호원과 (유)유승산업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들 사례는 협의체 전 회원사로 확산되어 다른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이 발표대회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며, 모기업과 협력사가 협력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연대의 힘

— 광주 안실단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망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5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건설현장별로 순번을 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호반건설 마륵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와 붕괴 위험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과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했다.



03

03 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연대의 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메시지 전파

또한, 근로자와 함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며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주 안실단은 제조업과 건설업 외에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는 TV 광고 캠페인을 통해 중대 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메시지를 전파했다.

TV 광고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송출되어 근로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높은 주목도를 얻었다. 또한, 광주교통방송(TBN) 라디오 고정 코너를 통해 계절별 주요 안전 이슈(여름철 온열질환, 겨울철 동절기 위험 등)를 전달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라디오 코너는 6주 간격으로 운영되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방송하고 있다.

또한, 광주 야구장에서 열린 시민 참여형 캠페인은 안전문화를 친근하게 전달할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 전 안전교육 영상 상영, 현장 부스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 문화를 알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안전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받을 수 있어 만족감을 표했다.

01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야구장 캠페인

02 야구장 캠페인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01



02

안전의 지속 가능성 구축

광주 안실단은 앞으로도 제조업 자율안전협의체와 건설현장 릴레이 캠페인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협의체 회원사를 24개에서 더 확대하여 참여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통한 사업장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사고 사례와 법규 동향 등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interview



광주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안전한 일터를 위한 민·관의 새로운 안전문화 모델

이성진 _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그룹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성진 그룹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업안전 활동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광주는 최근까지 대형 붕괴사고를 겪으며 지역 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다. 이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위험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월 발족한 광주·전남 제조업 자율안전 협의체는 삼성전자를 회장사로, 68개 협력사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민·관 합동 회장단과 5개 실무 분과를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의체는 실무 분과별로 ▲안전문화 ▲기계안전 ▲화재·폭발 ▲화학물질 ▲프로세스 등 5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베스트 파트너사를

육성했다. 또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열어 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를 통해 올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 및 순회 점검을 진행해 600여 건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했다. 이성진 그룹장은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각 현장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사 안전·보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SNS를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제조업 자율안전 협의체를 대표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협업 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안전문화 확산

전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전주 안실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발맞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 개선과 교육 강화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와 협력하여 예비산업인력에게 안전 문화를 전파하고,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주 안실단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찾아가는 순회교육

- 전주 안실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순회교육을 2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전주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와 협력해 총 19회 진행됐으며, 1,187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했다.
-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01 지자체 안전보건 체계 구축 순회교육



01

소규모 사업장 찾아가는 순회교육

- 참여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주 안실단은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 전주 안실단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전주 시내 9개 전광판과 버스 정보 시스템(BIS)을 통해 안전 메시지를 송출했으며, 주요 도로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지역 대표 제품인 테라맥주와 비비고 왕만두 포장지에 안전 문구를 삽입한 사례는 눈에 띈다. 이 같은 활동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익숙한 제품에서 안전 문구를 보니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월 1회 진행된 합동 캠페인에서는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전 교육을 병행했다. 60~70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캠페인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01 전광판 안전메시지 홍보
02 BIS 안전메시지 송출



01

02

- 01 지역 대표 제품 안전문구 삽입 (테라맥주)
- 02 안전문구 삽입(비비고 왕만두)



예비산업인력을 위한 안전보건 체험 부스 운영

전주 안실단은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대학 축제 기간 동안 안전보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예비산업인력에게 안전문화를 전파했다. 이번 체험 부스에서는 산업재해 사례 전시, 산업 안전 분야 진로 안내, 자격증 정보 제공 등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학생들은 부스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특히, 보호구 착용 체험과 안전 슬로건 작성 이벤트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단 지키고 보자”, “안전 is Best”, “안돼! 전 소중한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과 같은 창의적이고 진솔한 슬로건을 작성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향후 전주 안실단은 전북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교육기관과도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 안실단의 지속적인 활동이 지역 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03 전북대학교 축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홍보
- 04 보건부스(심폐소생술 교육)



03 04



01 02



03 04

- 01 보호구 착용 체험
- 02 안전인증샷
- 03 내가 생각하는 안전 슬로건은?
- 04 안전슬로건 참여작 일부

일상 속 안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주 안실단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체국 차량과 같은 이동 수단을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안전 문구 삽입 등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안전문화 확산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전주 안실단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북 지역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과 예비산업인력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주 안실단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선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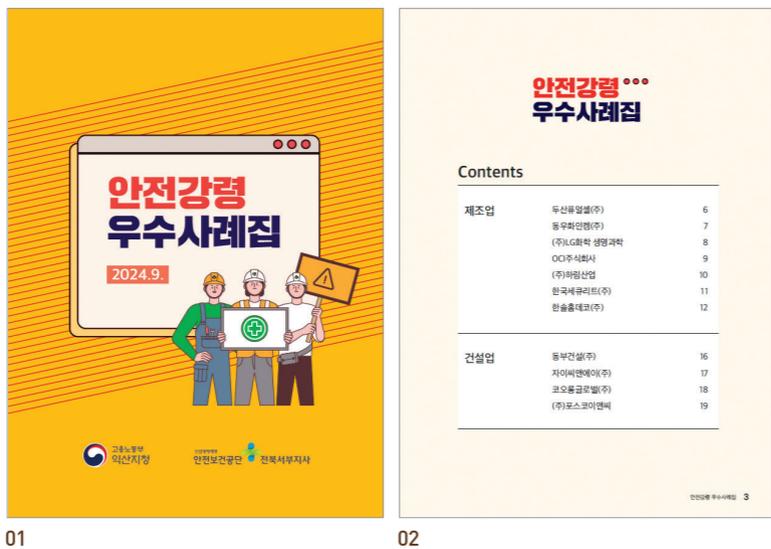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강령 우수사례집

익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익산 안실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강령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익산·김제 지역은 중소기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안전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번 사례집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안전강령, 사업장의 첫 번째 안전 장치

대부분의 사업장은 안전강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작성하거나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안전강령은 사업장의 헌법과 같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직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첫 번째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사례집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안전강령을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익산·김제 안실단은 사례집을 통해 사업장들이 안전강령 작성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01 안전강령 우수사례집 책자 표지
02 안전강령 우수사례 목차

01

02

우수사례를 모아 만든 실질적 안전 가이드

- 익산 안실단은 6월부터 안전강령 사례집 제작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지역 내 100인 이상 사업장 87곳과 1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 86곳을 대상으로 총 173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16개 사업장이 우수사례 제공에 긍정적으로 화신하며 협력에 동참했다.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가 협의해 최종적으로 11개 사업장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안전강령 작성 과정부터 적용 방법, 이를 통한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01

02

01 제조업 안전강령 사례(㈜하림산업)
02 건설업 안전강령 사례(자이씨엔에이㈜)

- 특히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한 방법까지 포함해 다른 사업장에서도 바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사례집 제작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토와 협력이 이어졌다.
- 참여 사업장에는 사례 제공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모든 사례는 익산·김제 안실단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작성 요령과 함께 안전강령 적용 시 유의점 등을 포함해 사업장들이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됐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집 배포와 반응

- 사례집 제작과 배포는 예산 문제로 외주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됐다. 직원들은 일주일 동안 직접 우편 작업에 나서 사례집 2,546부를 익산 관내의 건설업, 제조업, 기타 사업장에 배포했다.
- 사례집 배포 후 지역 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해 새롭게 안전 강령을 제정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특히 한 제조업체의 경우 사례집을 기반으로 안전강령 작성 절차를 처음부터 마련했으며, 작업자 교육과 병행해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 사례집에 포함된 11개 우수사례 사업장 또한 사례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사업장 관계자는 “안전강령 작성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경험이 다른 사업장에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다”며 사례 제공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안전강령의 비전

익산 안실단은 이번 사례집을 계기로 안전강령 작성이 지역 내 사업장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강령 작성과 적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사업을 준비 중이다.

향후 익산 안실단은 안전강령이 사업장의 기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례집의 정기적 업데이트와 함께 워크숍, 설명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례집 제작에 참여한 한 안실단 관계자는 “안전강령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사례집의 지속적 보급을 강조했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익산·김제 지역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출발점이자, 지역과 사업장이 협력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익산 안실단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이 지역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한여름보다 뜨거운 열정, 건강과 안전을 향한 약속

군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군산안실단)은 여름철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의대회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계절적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관리자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결의대회 개최

- 군산 안실단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들이 안전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결의대회를 마련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안전보건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시간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특히,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안전활동이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01 산재예방 결의대회

체계적 준비로 완성된 안전문화 행사

— 군산 안실단은 이번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5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군산지청 및 제조·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와 협력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사업장과 긴밀히 협의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결의대회와 함께 우수 안전보건인의 공적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해 지청장 표창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 5월 29일 은파호수공원에서 열린 본 행사는 군산지청과 전북서부지사 관계자를 비롯해 제조업·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근로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무재해 결의대회와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식,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가두 캠페인, 현장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가두 캠페인

— 행사 당일인 5월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강렬한 햇볕 아래 진행된 가두 캠페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여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근로자들에게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했다.

결의대회 또한 무더위로 인해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장소에서 진행되어 잠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군산 안실단은 급히 그늘진 장소로 자리를 옮겨 행사를 이어갔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01 산재예방 가두 캠페인(1)



01



01

01 산재예방 가두 캠페인(2)

온열질환 예방, 실질적 대책 마련

—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은 여름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물, 바람, 휴식으로 건강 지키기'라는 구체적인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옥외 작업자와 옥내 작업자의 작업 환경에 맞춘 예방 수칙을 상세히 소개하며,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특히, 네이버 밴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온열질환 발생 통계와 지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캠페인은 단순히 현수막이나 전단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02 온열질환 발생 통계와
지역 데이터



02

이번 결의대회와 캠페인은 군산 지역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산 안실단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관리자가 협력해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섬과 도시를 잇는 맞춤형 안전 실천의 다리

목포는 고령층 인구가 많고 섬 지역이 많은 특성상,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에 목포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목포 안실단)은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령층 대상 소식지 배포, 교통 요충지에서의 안전 캠페인, 산업 현장을 위한 포럼과 체험형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다.

고령층 대상 안전 소식지 배포

- 목포 안실단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전 소식지를 배포하며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목포지역은 고령화와 섬 지역 특성으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10월까지 목포, 영암, 장흥 등 8개 지역에서 총 18회의 소식지를 발행하며, 29만 5,700부를 배포했다.
- 여름철에는 폭염 예방과 농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열사병 대처법과 작업 중 휴식 지침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 01 영암군 안전 소식지
- 02 신안군 안전 소식지



01

02

고령층 대상 안전 소식지 배포

- 해안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를 강조했다.
- 소식지는 각 세대에 배포되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읽기 쉬운 글씨체와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러한 노력은 고령층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안머들기 캠페인

- 목포 안실단은 목포역, 여객선 터미널, 해상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안머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 장소에는 승객들의 이동경로에 따라 안전 메시지와 포스터를 배치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은 목포의 지역성을 반영한 표현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 목포역에서는 '우리 마음속 안전의 출발역, 이곳은 목포역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목포는 항구다, 안전은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통해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 이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했다. 주요 관광지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는 방문객 이동 경로를 따라 홍보물을 설치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 01 목포역 안머들기 캠페인
- 02 목포연안여객터미널 캠페인
- 03 목포해상케이블카 캠페인



01



02



03

조선업 안전보건포럼

조선업의 중심지인 목포에서는 HD현대삼호 등 7개 모기업과 200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조선업 안전보건 상생포럼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업체가 사고 예방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학습과 협력을 이어갔다.



01



02

포럼에서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는 협력업체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 01 조선업 안전보건포럼 현장
- 02 조선업 산재예방 풍선 퍼포먼스
- 03 조선업 안전보건포럼(HD현대삼호)



0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협력

목포 안실단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에 맞춘 활동으로 안전 문화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사와 협력하여 보행자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력 설비 방지대를 설치하고, 변압기와 개폐기에 안전 슬로건 스티커를 부착해 지역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목포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월간 안전보건'을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150여 곳에 비치하며, 지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힘썼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협력

6월 2일에는 대불산단 조선업 내·외국인 한마당 축제에서 VR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추락 사고와 화재 사고 등 조선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가상으로 재현하며 근로자들에게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01



02



03

- 01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사와 협업
- 02 전력 설비 방지대
- 03 변압기와 개폐기 안전슬로건 스티커 부착
- 04 조선업 내·외국인 한마당 축제 VR 체험
- 05 외국인 대상 안전문화 홍보



04



05

모두를 위한 안전, 끝없는 발걸음

목포 안실단은 고령층, 관광객, 산업 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식지 배포는 연령대와 계층별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교통 요충지에서의 육·해·공을 아우르는 캠페인은 관광객들에게도 목포의 안전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과 체험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목포 안실단은 더욱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며, 목포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근로자부터 관광객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 혁신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단지과 다양한 고위험 작업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근로자와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여수 안실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안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광객을 위한 창의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여수 국가산단 통합 안전교육

- 여수 국가산단 내에서 석유화학업체 1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통합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여수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운영됐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의 인프라를 활용해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결합했다.
-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실습, VR 체험, 크레인 및 롤러기 체험, 추락 방지 안전대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인원은 955명에 달했으며, 근로자들은 체험 교육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01 석유화학업체 대상
안전교육(1)



01

여수 국가산단 통합 안전교육

01 석유화학업체 대상
안전교육(2)



0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특히 VR 체험은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됐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여수 국가산단 협력업체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인정하며, 내년에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10월 13일,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2024 재여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한마당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이 전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협력하여 기획된 행사로, 약 22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 VR 체험에서는 드론 시점을 활용해 공정을 관찰하며 폭발 위험 작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이와 함께 주요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자료와 다양한 홍보물이 배포됐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국어로 된 안전보건 자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또한, 안전퀴즈, 안전모 및 보호구 착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01



02

01 재외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마당 VR체험
02 안전모 착용 체험

시민과 관광객 대상의 독창적 캠페인

- 여수 안실단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독창적인 캠페인을 기획했다. 여수의 대표 특산품인 낭만막걸리와 갯김치 배송 상자에 안전 메시지를 삽입한 활동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소소한 막걸리, 당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라는 문구는 110만 병의 막걸리 라벨에 삽입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됐고, 갯김치 택배 상자에는 ‘안전한 배달은 행복을 전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됐다.
- 이 캠페인은 여수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지역 기업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활동은 지역 사회와 산업체 간의 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전남드래곤즈 구단과 협업하여 10월 26일 광양 축구장에서 진행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은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 시작 전과 하프타임 동안 진행된 안전교육 영상 상영을 통해 축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안전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01



02



03



04

01 여수 특산품 낭만막걸리 제품 안전메시지 삽입
02 여수 특산품 갯김치 배송 상자 안전메시지 삽입
03 전남드래곤즈 협업 캠페인
04 광양축구장 안전메시지 현수막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와 안전 캠페인

- 11월 2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에서는 대규모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이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은 OX 퀴즈, 안전 2행시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산업안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특히 ‘4대 금지 캠페인’은 시민과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을 상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행사에는 약 8만 명이 참여해 여수 지역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제주(JEJU), 안전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제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30개 기관은 소규모 사업장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독창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마이 세이프티 룰 캠페인’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축제’는 그 노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두 활동의 구체적인 전개와 성과를 중심으로 제주가 만들어가는 안전문화의 비전을 조명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마이 세이프티 룰’ 캠페인

소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재해 예방을 하기에는 인력, 비용문제 등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제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제주 노사 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공단 그리고 재해 예방기관 8개소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마이 세이프티 룰 캠페인’ 인증챌린지를 진행했다.

- 01 ‘마이 세이프티 룰’ 인증샷임업
- 02 인증샷서비스업



01



02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마이 세이프티 룰’ 캠페인

캠페인은 도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고려하여 선정된 1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 안내서 3종’을 배포하며 시작됐다. 안내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제주 안실단이 자체 제작한 입식 보드판도 함께 제공됐다. 배포된 입식 보드판은 사업장별로 매일 실천 가능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우고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작돼 활용성을 높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업장은 자신의 안전수칙 실천 모습을 인증샷으로 촬영하여 제출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였다. 도내 각 사업장이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9월부터 시작된 참여가 11월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인증샷 제출로 실천 의지를 입증했다.

특히 재해 예방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기술지도와 안전교육을 병행하며 전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호평받았다.

- 01 산업안전 안내서(3종, 샘플1)
- 02 산업안전 안내서(3종, 샘플2)
- 03 ‘마이 세이프티 룰’ 인증샷(제조업)
- 04 인증샷(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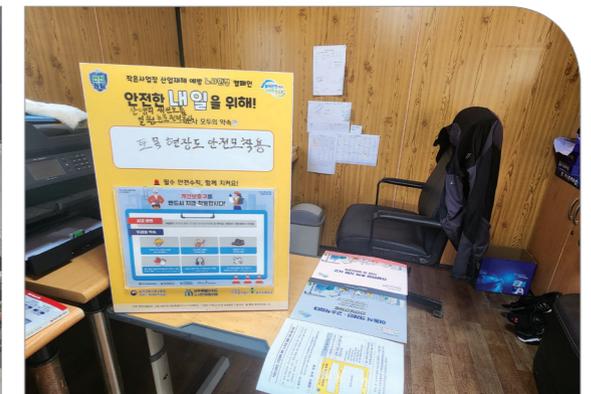
01



02



03



04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한 협력의 가치

— 안실단 참여기관인 제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업장별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서 제작예산의 전액을 지원하며 캠페인의 성공적 운영에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안실단과 노사민정협의회는 함께 협업하여 제한된 예산 문제를 해결했는데, 공단 자체 예산(400만 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예산(1250만 원)을 합쳐 TV와 라디오 광고를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드러 냈다. JIBS 제주방송에 송출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켰다.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축제

—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16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축제’는 제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였다. 행사는 1,650명의 도민과 근로자가 참여하여 산업안전 VR체험, 안전 온도 높이기, 근로자 건강상담, 어린이 안전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한 VR 체험버스는 산업재해와 어린이 안전 사례를 가상현실로 구현하며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다. 삼다수 생수를 지원한 개발공사는 행사 운영 인력도 다수 파견하며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대상 안전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494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창의적으로 안전의 가치를 표현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제주에서 힐링하셨다면, 일터에서 안전하세요’라는 안전 메시지가 담긴 삼다수 무라벨 제품을 배포하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 안전 골든벨 퀴즈와 다양한 안전 관련 UCC 영상 상영도 도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즐겁게 전달한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안전문화 실천 서약 운동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자신만의 안전 슬로건을 작성하며 서약에 동참했고, 이를 통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 01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축제 근로자 건강 상담
- 02 어린이 안전 그림그리기
- 03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 04 VR 체험



01



02



03



04

관광객과 지역도민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 제주 안실단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도민 모두가 안전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슬로건인 ‘입도부터 출도까지 안전 제주’를 바탕으로 공항, 항구,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 메시지를 널리 전파했다.

— 특히, 삼다수 병뚜껑에 QR 코드를 삽입해 안전 메시지를 제공한 활동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재난 시 대처법과 안전 수칙이 담긴 콘텐츠로 연결되며,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 캠페인 현장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안전 퀴즈와 체험 활동을 진행해 참여를 독려했다. 관광객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정보를 습득했으며, 현장에서 제공된 홍보물과 기념품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 01 삼다수 무라벨 운동으로 QR활용
- 02 병마개(QR) 안전문구 삽입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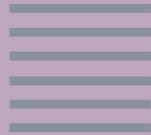
제주 안전문화를 위한 지속 가능성 확보

제주 안실단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한층 발전된 안전문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캠페인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 그림그리기 대회와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의 성공적인 운영은 내년에도 이어질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민들에게는 안전을 재미있게 배울 기회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제주를 진정한 ‘안전문화의 섬’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제주의 안전 문화는 이렇게, 도민들의 삶 속에서 점차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대전권



대전

190

'오늘의 안전일터'로
안전 노하우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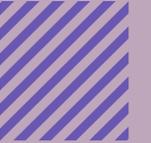
195

대전지역 안실단 인터뷰
윤태수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 회장

보령

196

현장에서 찾은
안전 관리 해답



청주

200

일상에서 만나는 안전,
함께하는 변화

충주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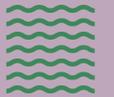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으로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천안

207

OX 퀴즈대회로
안전 의식 함양



서산

210

충남 도민체전서
올려 퍼진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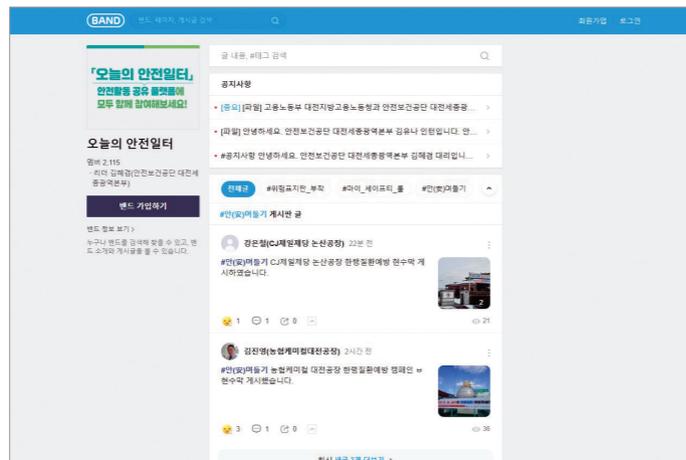
'오늘의 안전일터'로 안전 노하우 공유

대전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대전 안전단)은 중소기업장들이 겪는 대형사업장과의 안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네이버 밴드 기반 '오늘의 안전일터' 플랫폼을 선보였다. 12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2천여 명에 달하며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안전 공유 플랫폼 부재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장

- 대기업의 경우 운영하는 협의체·협의회 등을 통해 안전 활동이나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공유 플랫폼 등의 부재로 정보 학습 및 공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의 경우 안전 관련 자료나 시안 등을 어디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장들이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에 대한 의지는 많으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을 토로했다.

01 오늘의 안전일터 메인화면



01

안전 공유 플랫폼 부재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장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 '오늘의 안전일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세종 안전단은 '오늘의 집'이라는 유명 인테리어 공유 앱에 착안해 '오늘의 안전일터'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장을 포함한 지역 내 안전보건 관계자 누구라도 각자의 안전활동 사례들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안전활동 공유 플랫폼이다.

'오늘의 안전일터'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안전 활동에 관심이 많고, 타기관 안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싶은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사업장 관계자들의 참여와 함께 폭넓은 사례 공유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 참여대상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인지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네이버 밴드로 플랫폼을 구축했다. 네이버 밴드 앱으로 접속해서 '오늘의 안전일터'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 안전단 중점 추진사항인 3대 안전캠페인(위험표지판 부착, 마이 세이프티를, 안며들기 및 기타 안전 활동 사례까지 4가지 핵심 테마를 선정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 소통방의 경우,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 혹은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처음부터 운영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았다. 안전 관리자들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이버 밴드까지 들어가 일일이 확인해 볼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01 오늘의 안전일터 홍보 OPS
- 02 오늘의 안전일터 안내 솜뭉치



01



02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 '오늘의 안전일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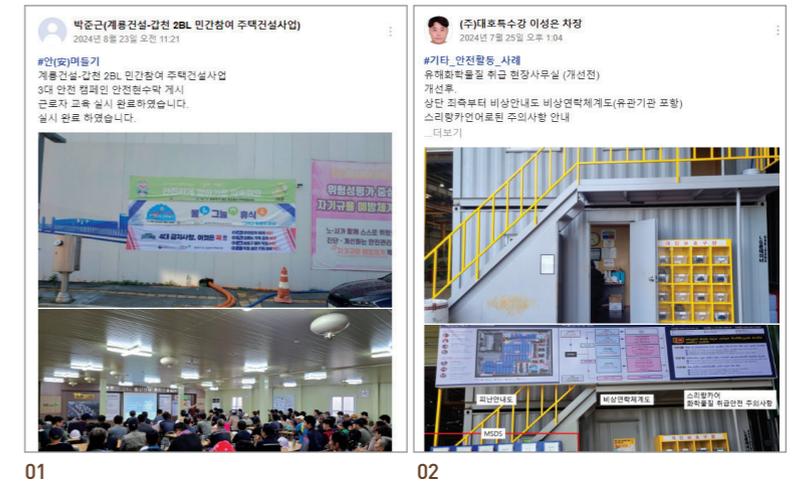
월 단위 인센티브 노하우 공유 활성화

- 이에 대전 안실단은 QR코드를 포함한 홍보물(OPPS)와 솜품 콘텐츠를 활용 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사업장의 높은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게시물 작성자 대상으로 월 단위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 매월 4개 게시판(안전 소통방 제외) 작성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증정해왔다. 게시판 글 작성 참여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일반 커피 쿠폰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은 '치킨' 구매 금액을 제공했다. 반응은 상당했다. 12월 12일 기준, 가입자 수는 2,059명이며 주요 4개 게시판의 게시물수는 약 500여개를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사업장 간 상호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양질의 안전 노하우 학습과 공유가 가능 해졌다. 이를 통해 모든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 안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상당 부분 실현시키고 있다.
- 대전 안실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운영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사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관련 부서의 전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월 단위 인센티브 노하우 공유 활성화

- 01 안머들기 캠페인
- 02 기타 안전활동 사례

- 운영의 용이성을 위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후 앱으로 운영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보다 활발한 쌍방향 소통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성심당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 부채 제공

- 03 폭염에서 살아남기 부채 (앞, 뒤)

- 이밖에 대전 안실단은 성심당과 함께하는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전 기업인 성심당과 협력해, 폭염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을 전파했다. 더위가 절정이었던 8월 초중순 친환경 종이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형태로 진행한 가운데, 부채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각 기관 상징 캐릭터인 고용 노동부의 '고드래곤', 안전보건공단 '안젤이', 성심당의 '성심이' 캐릭터가 포함됐다.



'오늘의 안전일터' 활동 내용

- 01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 02 마이 세이프티를 캠페인



성심당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 부채 제공

— 캠페인 첫날(7일)의 경우 성심당 본점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성심당 3개 기관과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노동청의 제2기 대전·세종 안전문화 청년서포터즈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후 20일까지 2주간 성심당 본점 일대와 대전역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폭염 취약 시간인 오후 2시부터 3만 개의 부채를 배포했다.

이에 더해 성심당과 '문화예술의 거리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함께 제작한 부채 10만 개에도 온열질환 예방수칙 내용을 포함했으며, '대전 0시 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활용해 홍보해 참여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 01 캠페인용 X배너
- 02 캠페인용 현수막
- 03 안전문화 동행 파트너 현판 수여식



01



02

파트너십 체결과 안전문화 동행 파트너 인증 현판 증정식까지 함께

이후 성심당과 민간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 메시지 전파를 약속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 파트너십을 체결한 8개사(주)선양소주, 성경식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롯데월드 대전공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주)KT service 남부, 로소주식회사 성심당에 안전문화 동행 파트너 현판을 수여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의 안전일터' 플랫폼을 통해 사업장 안전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창출한 대전안실단이 지역기업과 협력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03



interview



대전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안전 정보 교류 중개자



윤태수 _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 회장

— 대덕연구단지안전협회(이하 협의회)는 대덕연구단지 안전관리자들의 모임이다.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관계 유지를 통한 안전 기술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직됐다.

2003년 11월 14일 세워진 협의회는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내 국책연구원과 기업부설연구원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교도 가입해 70여 개 회원사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윤태수 회장(SK이노베이션 대덕기술원 PM)은 나아가 주기적으로 안전 관련 시설 개선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 레퍼런스 확보에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분기에는 서울 마곡 소재 LG 사이언스파크 내 연구기관을 방문해 석학들에게 안전보건 트렌드를 배웠다.

또 2004년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2,400여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양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교류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분기별로 안전보건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여타 메이저급 학회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2024년 산업안전 정책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해설 및 대처 방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인공태양 연구 현황 및 안전 관리 등의 내용으로 알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에 가입, 안전 및 보건 관련한 사항들을 안실단에 전함과 동시에 안실단에서 진행되는 각종 활동들을 협의회에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윤태수 회장은 "향후 협의회에서 안전보건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할 때, 안실단 사례가 발표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서 찾은 안전 관리 해답

산업(농공)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 속 보령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보령 안실단)에서 추진 중인 ‘산업(농공)단지 릴레이 캠페인’이 사업장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 문화 실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5개 지역 산업(농공)단지 방문, 안전사고 방지 필요성 절실

— 보령 안실단은 올해 3대 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현장 단위 안전 문화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천적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사업장의 자생적 안전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 01 안전문화 실천활동 강화 캠페인
보령 주포 농공단지
- 02 청양 운곡 농공단지



01



02

5개 지역 산업(농공)단지 방문, 안전사고 방지 필요성 절실

- 01 부여 홍산농공단지
- 02 서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01



02

세밀한 현장 점검 분위기 '훈훈'

— 캠페인 실시 전 보령지역 안실단은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고위험사업장 분포 여부 등을 고려해 ▲주포농공단지(보령) ▲운곡농공단지(청양) ▲홍성 일반산업단지(홍성) ▲홍산농공단지(부여) ▲서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서천)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 보령 안실단 관계자는 방문 전 각 단지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 찾아가는 캠페인으로 부담 없게 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전달했고, 캠페인 당일 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이다.

— 특히 전북과 가까운 서천군의 경우 보령지청과 굉장히 멀어 지청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령 안실단의 방문을 상당히 환영했다고 한다. 보령지역 안실단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때 모든 부분을 체크해달라고 부탁했고, 세세한 피드백 속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 보령(5/29), 청양(6/27), 홍성(7/25), 부여(9/25), 서천(10/23)에서 3대 사고 유형(끼임·추락·부딪힘)과 8대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던 가운데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 ▲4대 금지 캠페인 등 시기별 중점 사항에 대해 집중했다. 이와 함께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용 스티커북, OPS·리플릿, 위험성평가 안내서 등 안전보건자료 및 홍보물을 배포했다. 제조업 현장은 끼임사고, 건설 현장은 추락사고 비중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맞춤 피드백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01 현장점검 및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02 현장점검 피드백 회의

현장에 발견한 사각지대, 즉시 개선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됐다.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용 스티커북을 배포하며 실제 현장에서 부착하는 모습을 보고 스티커의 크기, 색깔 등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놓쳤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 이에 보령 안실단은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분포 현황을 파악한 뒤 2차 스티커북을 제작·배포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종을 구분했고 위험표지 스티커에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 기재했다. 스티커는 위험 상황별로 약 30개가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산업농공단지 직방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니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의 고충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낀 보령 안실단은,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03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용 스티커북(1차)



현장에 발견한 사각지대, 즉시 개선

01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용 스티커북(2차, 건설)
02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용 스티커북(2차, 제조)

청양군청과 협업 고지서에 안전 메시지 송출

03 고지서 4대 금지 캠페인 홍보



- 한편 보령 안실단은 청양군청과의 협업을 통해 9월과 10월 청양군민에게 안전 문화 메시지를 송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보령지청과 대전세종광역본부에서 안전 메시지 시안을 제공하고, 청양군청에서는 지방세 납인용 고지에서 안전 메시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4대 금지캠페인' 관련 안전 메시지를 확산시켰다.
- 5개 지역 산업농공단지를 방문하며, 산업 현장에서 찾아가는 캠페인을 진행함과 더불어 부족한 점을 발견해 개선점을 도출한 보령 안실단이 지역 관공서와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 전파를 강화하고 있다.



03

일상에서 만나는 안전, 함께하는 변화

청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청주 안실단)은 인구 밀집 지역과 공업단지가 있는 특성을 활용해 ‘안전문화를 일상으로’라는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청주 안실단은 더욱 풍성한 캠페인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안머들기캠페인의 정착과 성장

- 지난해 처음 출범한 충북 안실단의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은 올해 더욱 풍성한 참여와 협력으로 이룬 안머들기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 2월 29일 올해 첫 안머들기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KTX 오송역, 지역 명소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꾸준히 진행됐다. 매회 30~50명의 단원이 참여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된 캠페인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더욱 발전했다.
- 특히 캠페인 단원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활동을 소개하며 새로운 참여자를 자연스럽게 모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내 안전관리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안실단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01 청주지방합동청사 안머들기 캠페인
- 02 KTX 오송역 캠페인



01

02

- 01 KTX 오송역 캠페인
- 02 가경터미널 시장 캠페인
- 03 청남대 캠페인



02



01



03

하이트진로· 충북소주와의 협업으로 안전문화 확산

- 청주 안실단은 하이트진로와 충북소주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제품에 ‘식사 전 메뉴 고민, 작업 전 안전 고민’이라는 안전문구를 삽입했다. 주로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주요 소비층인 소주 제품의 특성을 활용해, 작업 전 안전수칙에 대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문구 선정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상 속 고민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돋보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04 진로 참이슬 라벨 시안
- 05 충북소주 시원한 청풍 라벨 시안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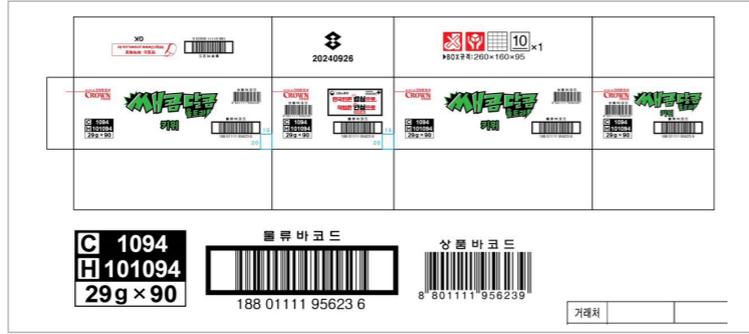
크라운제과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 10월 31일 크라운제과와의 협업을 통해 대표 제품 새콤달콤의 신제품 새콤달콤 울트라 키위 맛 포장 박스에 ‘한국인은 밥심으로, 작업은 안심으로’라는 안전문구를 삽입했다. 이 캠페인은 단순 소비자뿐만 아니라 배송 근로자와 유통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양한 산업군에 안전문화가 스며들도록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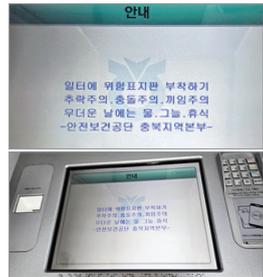
01

- 01 안전메시지 노출 박스
- 02 크라운제과 안전메시지 시안 (빼꼼달콤 포장박스)



02

지역 은행 ATM에 송출된 안전문구



03

03 농협 ATM 송출 화면

특히 청주 안실단은 이러한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지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해 더 많은 지역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청주 안실단은 충북 ESG경영 활성화 협의체와 협력해 8월 5일부터 18일까지 농협은행 자동화기기(ATM) 화면에 안전문구를 송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추락 주의', '끼임 주의', '무더운 날씨에 물·그늘·휴식' 등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안전 메시지를 담은 이 캠페인은 ATM 사용 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도록 기획됐다. 짧은 송출 시간과 제한된 화면 크기 때문에 일부 한계점이 있었지만, 지역 내 다양한 장소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ATM을 이용한 시민들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곳에서 안전 메시지를 보니 흥미롭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주 안실단의 미래 계획

청주 안실단은 올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안머들기 캠페인, 소비자와의 협업, 위험표지판 부착 프로젝트는 청주 안실단이 안전문화를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 청주 안실단은 지역 소비자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타 지역 안실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안전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안전은 생활의 기본'이라는 신념 아래, 청주 안실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으로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충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충주안실단이 '마이 세이프티 룰' 정착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업장 경영진이나 몇몇 안전 관계자들이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01 선정된 캐치프레이즈 활용 안전문화 캠페인 (주)세아특수강



01



사업장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초점

신청 사업장 중 '참여 사업장 선정 위원회' 구성

— 충주 안실단은 ▲대상 사업장 모집(7/22~7/31) ▲선정 위원회(8/2) ▲캐치프레이즈 접수(8/5-8/14) ▲사업장 자체 심사(8/16-8/20) ▲결과 제출(8/21) 과정을 거쳐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진행했다.

우편발송 및 SNS를 활용해 공모전 참여 사업장을 모집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 참여 희망 사업장을 접수하되, 자체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활동 역량을 갖춘 대기업은 제외시켰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경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관내 산재 다발업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화학 및 고무제품,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는 관내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핵심 타깃으로 해 참여를 유도했다.

— 그다음 참여 사업장 선정 위원회를 구성, 공단 및 지청 안실단 담당자들이 ▲사업장 위험도(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고위험사업장 시 예측 결과 기반) ▲사업장 규모(산재보험 기준 상시근로자 수 및 총공사금액) ▲산업재해발생 현황(최근 3년 내 기준) 등을 고려해, 참여 희망 사업장 중 9개소를 선발했다.

해당 사업장은 ▲(주)동진씨미켈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 ▲(주)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주)한양 종합건설 ▲헨켈코리아(유) 오토모티브지점 ▲(주)흥국에프엔비 ▲(주)일창 건설이다. 사업장 당 최대 3개씩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사업장별 캐치프레이즈 접수 및 심사가 이뤄졌다. 참여 사업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캐치프레이즈 내용과 형식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SNS, 사내 게시판 등의 소통채널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홍보했다. 심사도 자체 투표, 부서장 심사 등 사업장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해, 참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01 캐치프레이즈 현수막



참여 사업장 자율성 존중 내용·형식 제한 없애

— 소속 근로자들이 낸 아이디어를 토대로 직원 투표 등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발·시상했던 가운데, 선발된 캐치프레이즈는 ▲작업은 절차대로 안전은 원칙대로(동진씨미켈) ▲안전점검 잠시 우회, 안전사고 평생 후회(미원스페셜티케미칼) ▲실천하자 사고예방 다시보자 안전확인(삼표피앤씨) ▲내 마음속 안전수칙 내 몸으로 실천하자(세아특수강) ▲안전 의식의 가치, 공단과 같이!(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당신은 안전문화를 꽃피우는 꽃잎 하나입니다(한양종합건설) ▲내가 무시하는 안전수칙 저승가는 하이패스(헨켈코리아) ▲상사에겐 반항해도 안전에는 순종하자(흥국에프엔비) ▲아차사고! 방심하면 중대재해!!(일창건설)다.

— 사업장별로 작업 내용이나 근무 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안전 구호보다는 직접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는 사업장에 마이 세이프티 룰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충주 안실단은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다.

01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캠페인
02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 캠페인





참여 사업장
자율성 존중
내용·형식
제한 없애



01 (주)흥국에프엔비

01

공모전 참여 사업장 확대 내년엔 더욱 업그레이드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로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행사성 활동보다는 참여형 이벤트가 근로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던 것은 충주 안실단에게 있어 커다란 소득이 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을 깨달은 충주 안실단은, 향후에는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안실단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좀더 상세하게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공모전 참여 사업장을 산재 다발업종 위주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 수 제한 범위도 완화시켜 더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일반공모 형식이 아닌 사업장별 참여로 사업장에서 안전 문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는 현장의 반응과 함께, 참여 사업장에서 만족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자체 공모전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충주 안실단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OX 퀴즈대회로 안전 의식 함양

천안·아산·예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천안 안실단은 관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전협의체를 구성, 건설업 CEO 아카데미,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콘텐츠 지원,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OX 퀴즈대회를 통해 사내 근로자들이 안전문화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직도 남은 안전불감증, 능동적 참여 플랫폼으로 해결

천안지역 안실단은 안전머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 LS ELECTRIC 천안사업장에서 '사내 안전 OX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수십년 간 안전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남아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의 수동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이젠 누가 시켜서 안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안전 실천 문화를 만들고자 지난해(2023년부터 LS ELLCTRIC에서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했다. 이러한 방침을 근로자들 사이에서 내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내 퀴즈대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천안 안실단의 설명이다.

01 OX퀴즈대회 현장
02 OX퀴즈대회 포스터



01



02

**아직도 남은
안전불감증,
능동적 참여
플랫폼으로 해결**

**열띤 호응 속
높은 안전의식
수준 확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OX퀴즈대회 취지 설명 후 대회가 시작됐다. 총 50문제로 진행됐던 가운데 안전에 대한 일반 상식(하인리히법칙 등)과 자사의 안전현황(무재해 달성일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됐다.

그런데 50번까지 진행됐음에도 우승자가 가려지지 않아, 예비로 준비해둔 10문제를 추가 진행하게 됐고 55번까지 가서야 우승자가 탄생했다. 안전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은 근로자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수준의 긍정적인 현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 속에, 천안지역 안실단은 이를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퀴즈대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2025년)에는 사무직군과 현장직군을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01 천안 OX퀴즈대회 현장

**전국 최초
CEO아카데미,
중견·중소 건설업체
맞춤형으로 첫발**

천안 안실단은 전국 최초로 CEO아카데미(정해진 커리큘럼 하에 몇 주간 진행되는 교육, 토론 방식의 포럼활동)를 진행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고 사망자 20% 이상 감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목표를 뒀던 바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할 안전전담 조직을 갖추기 어렵다. 특히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 조직운영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부족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전국 최초
CEO아카데미,
중견·중소 건설업체
맞춤형으로 첫발**

이에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 투자계획 등의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아카데미형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주요 커리큘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위험성평가 이해와 실행절차 마련 방안 ▲안전심리 및 조직문화 향상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각 해당 분야 최고의 현직 전문가·대학교수들을 강사로 구성하고, 중견·중소 건설업체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01 건설업 CEO 아카데미 4기 수료식

01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도약, 올해는 확대 진행

안전보건 노하우를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인식들을 소통과 교류의 장에서 함께 나눴다. 이로써 CEO들이 스스로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새로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현장의 반응이다.

이에 고무된 천안 안실단은 금년에는 기수를 늘려 제조 2개, 건설업 3개, 민간재해예방기관 1개의 기수에 걸쳐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3기는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8주간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에서, 4기의 경우 6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모집 공고가 나자마자 건설사 CEO들이 바로 신청해 안실단의 예상보다 빨리 마감됐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CEO들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보건관계체계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관내 중견건설업체 85개 회사 CEO들이 2개월 과정의 안전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가운데, CEO아카데미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충남 도민체전서 올려 퍼진 안전

서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서산 안전단)은 지난 6월 13~16일 열린 서산시 일대에서 열린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월, 7월, 11월 총 세 번에 걸쳐 LG 화학과 함께하는 화학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썼다.

01 충남도민체전 안전문화 홍보 부스



01

행사 3달 전부터 철저한 안전문화 홍보 준비

서산지역 안전단은 지난 13일 서산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충남도민 체전에서 안앰머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앞서 안전단은 행사 3달 전부터 홍보부스를 기획하고, 홍보물품 제작 및 각종 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야외에서 홍보할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 VR체험 기기의 경우 자외선이 닿을 시 고장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험 기기 대수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에 맞춰 해당 체험부스와 테이블 크기를 맞추는 등 세심하게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안전보건공단, 충청남도, 서산시 등에서 참가한 20여 명의 안전단 관계자들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이 인쇄된 부채, 물티슈, 안젤이(캐릭터) 스티커 등을 나눠줬으며, 안전 보호구 체험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정말 와닿아” 실감형 VR 체험 통한 안전의식 고취

또한 VR 산업안전 체험 부스를 운영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지진, 화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01 충남도민체전 안전문화 홍보 VR 체험

02 안전문화 홍보 자료 배포



01



02

“정말 와닿아” 실감형 VR 체험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지게차 충돌이나 추락사고 체험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정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체전 기간 내내 서산 안실단은 한목소리로 ‘안전’ 구호를 강조했다. 여기에 엄청나게 더웠던 시점에 ‘온열질환’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의 경우 다른 때보다 참가자들의 기억에 더욱 강하게 남았을 것이라는 현장의 반응이다.
- 서산 안실단은 안머들기가 대국민 캠페인인 만큼,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행사에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친밀하게 녹아드는 기획과 구성으로 행사나 부스 운영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LG화학과 함께 올해 3번 화학 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01 LG화학과 함께하는 화학 사고 예방 캠페인(1)



01

LG화학과 함께 올해 3번 화학 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01 LG화학과 함께하는 화학 사고 예방 캠페인(2)



01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노하우 체계화 요청 역할 증대되는 안실단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사고나 이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서산 안실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짚은 후, 근로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행동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 부착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던 가운데, 패널 토론에서 업종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안전관리 지식과 경험을 문서로 만들어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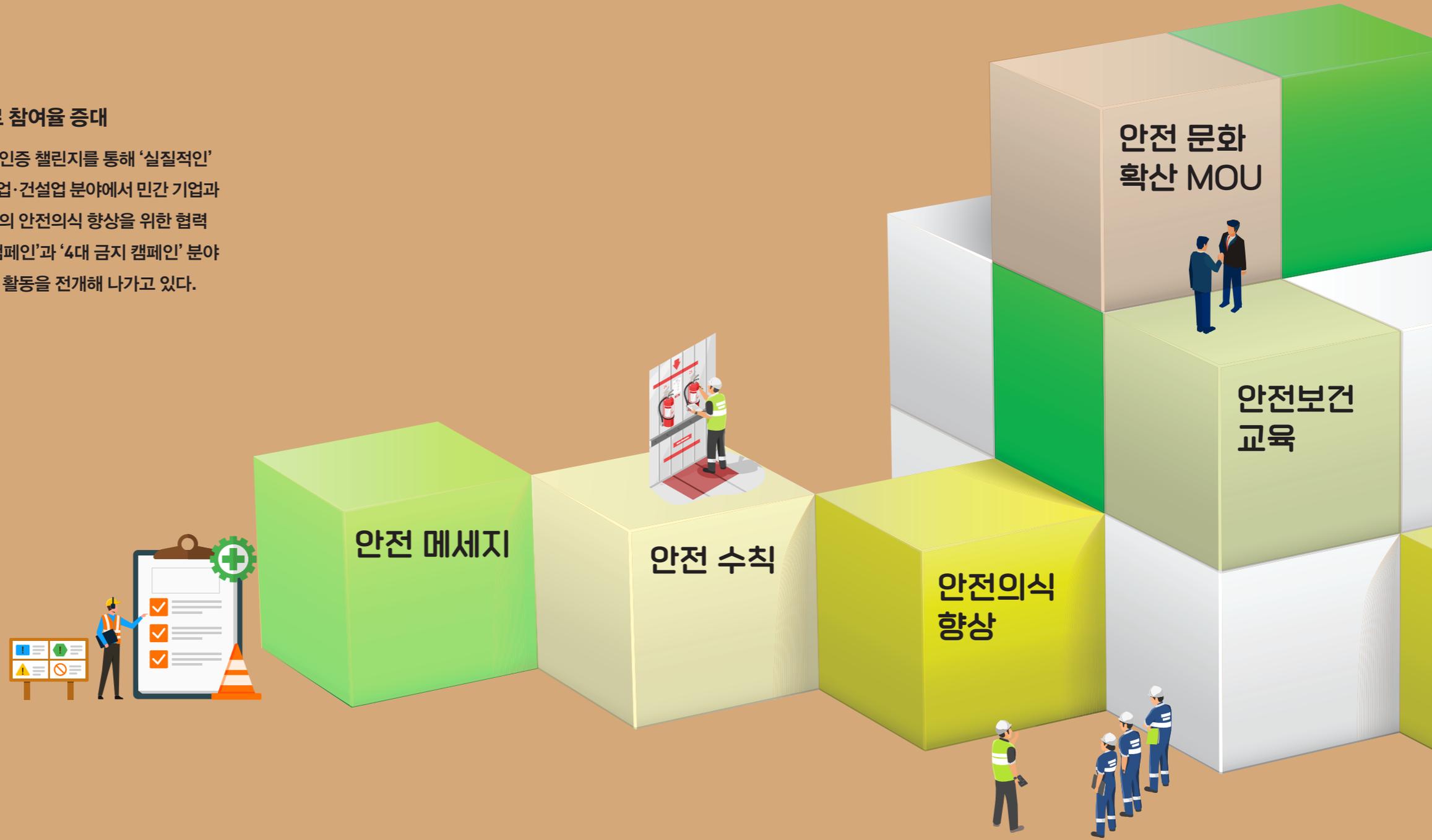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포럼 현장은 바로 안실단의 화학 사고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던, LG화학 대산 공장이었다. 바야흐로 서산 안실단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PART 03.

본부 특별활동

협약으로 캠페인 시작, 인증으로 참여율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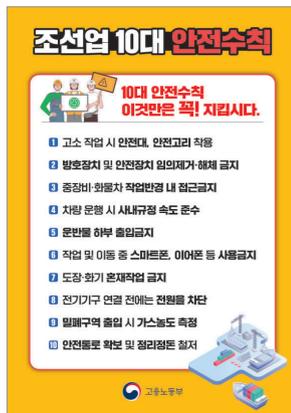
중앙 안실단은 업종별 협약과 캠페인 인증 챌린지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했다. 조선업·건설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과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업종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과 '4대 금지 캠페인' 분야 인증 챌린지를 통해 참여 유도형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요 조선사들과 안전을 향한 맞을 올린다!

- 조선업계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4월 22일 국내 8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HD현대미포, HD현대상회)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동참 및 확대 ▲ 안전 메시지 전파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 조선업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및 강사 인력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 사업장 내 안전 메시지를 게시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선업 주요 기계 장비와 위험요인을 선정해 61종의 안전 메시지를 스티커, 현수막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배포했다.
또한,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조선업 주요 공정별 위험요인 및 공통 위험요인을 분석해, '조선업 10대 안전수칙'을 선정했다. 이는 8개 조선사가 이미 보유한 자체 안전수칙과 더불어 조선업계 전체가 협력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01 조선업 10대 안전수칙
02 주요 안전메시지 61종 중 현수막 시안 예시 10종



01



02

* 창원지청 안전허그티 지급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메시지가 삽입된 안전허그티 지급하며 사업주들에게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행사



01 02 03

01 HD현대미포
외국인지원센터 홍보물
02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3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허그티 지급

- 또한, 중앙 안실단 차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 ▲사업장 요청 시 안전보건 강사 지원 ▲외국인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번역 ▲조선업 산업안전 한·영 사전 제작 ▲외국인 근로자 강사 양성 과정 지원활동을 진행했다.

12개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 MOU 우수사례 만든다

- 국내 사고사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주요 작업을 담당하는 12개의 전문건설사들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후, 지난 11월 14일 '안전문화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협약 참여 12개 전문건설사

: (주)무경, (주)삼영기업, (주)신성이엔지, 우일정보기술(주), (주)우진아이엔에스, 이넵스(주), 인창기건(주), (주)정도, 중원엔지니어링(주), 지에스네오텍(주), 쿠리타한수(주), 한양이엔지(주)

-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전문건설 안전보건협의회의 주요 전문건설사들과 협력해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소규모 전문건설사가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개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 MOU 우수사례 만든다

- 또한, 건설업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 20종을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으로 제작하여 협약 참여 전문건설사들과 지역별 안실단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개선할 예정이다.
- 이에 발맞춰 전문건설사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및 위험성 평가 등 현장 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01 전문건설업 10대 안전수칙
- 02 안전보건 픽토그램
- 03 주요 안전메시지 위험표지판 시안



01 02



03

- 01 건설현장 위험표지판 부착
- 02 현수막 부착
- 03 포스터 부착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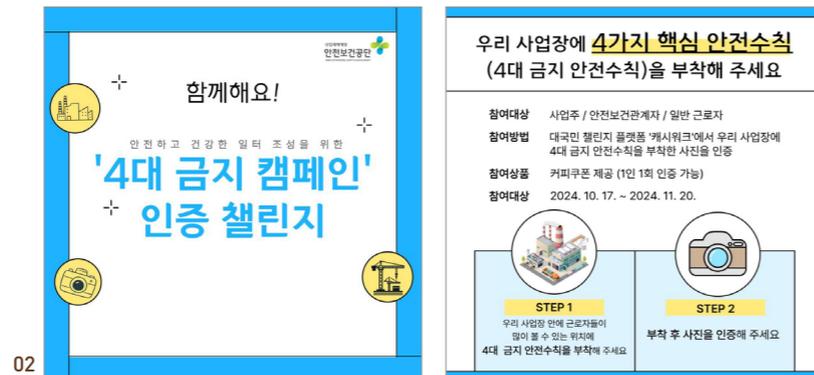
인증 챌린지 앱 통해 자율적인 캠페인 참여 증대

- 올해 안실단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과 ‘4대 금지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 캠페인은 정책 사업과 연계되어 안실단 네트워크와 누리집을 통해 확산 되었으나,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회원 2,100만 명을 보유한 인증 챌린지 앱(APP) ‘캐시워크’와 협업하여 캠페인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증 챌린지 앱 통해 자율적인 캠페인 참여 증대

-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인증 챌린지’는 6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주간 ▲사업장 내 위험요인-구역을 발굴 ▲위험표지판 부착 ▲위험표지판 부착 전후의 사진을 인증받았다. 또한, ‘4대 금지 캠페인 인증 챌린지’는 10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주간 진행되었고, 4대 금지 캠페인 안전수칙을 부착한 사진을 인증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인증자 2,000명과 4대 금지 캠페인 인증자 3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16,277개의 인증 사진(위험표지판 부착 및 4대 금지 캠페인)이 업로드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 01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인증 챌린지 소개
- 02 4대 금지 캠페인 인증 챌린지 소개



- 01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인증사진
- 02 4대 금지 캠페인 인증사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업들은 협약을 통해 캠페인 확산, 교육 시스템 구축, 홍보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증 챌린지는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현장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참여기관

서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안전신문사,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서울지부,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직업병안심센터,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서울본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앙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서울특별시

강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재해예방주식회사,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대한산업안전협회춘천안전기술국, 사랑산업보건건설팀, 한국안전원주식회사, 대한산업보건협회강원산업보건센터, (주)일화춘천GMP공장, 선원건설(주), 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한강수력본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북부지방산림청, 강원개발공사, 양구군청, 인제군청, 화천군청, 춘천시청, 강원도청,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원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근로자건강센터,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 중앙건설안전기술,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삼일안전기술원(주), 강원재해예방건설팀(주), 강원재해예방(주), (ks)안전기술, 사랑산업보건건설팀, 한국산업안전기술원(주),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주)제일안전기술원, (주)대성세이프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원주황성보건관리자협의회, 원주황성안전관리자협의회(제조업 등), 원주황성안전보건관리자모임(건설업),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황성지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황성군청, 원주시청, 산림항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TBN강원교통방송, (주)국순당, HL만도(주)원주공장, 삼양식품(주), 롯데웰푸드(주)파스퇴르공장, (주)SG프리카, 해태가루비(주)

강릉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강원도민일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릉안전기술국, 한국안전원(주), (주)세이프지, 가톨릭관동대 산업환경보건연구센터,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신화건설(주), 강원여객자동차(주), 롯데칠성음료(주)강릉공장, 한라시멘트(주), 영동남부지역 현장소장협의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강릉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강릉지역지부, 강릉시

태백·삼척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주)삼표시멘트삼척공장, 건설현장안전관리자협의회, 대한산업보건협회강원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강원지회, 한국가스공사삼척기지본부, 한전KPS주식회사삼척사업소, 한국남부발전삼척빛드림본부, 삼척시 재난안전과, 태백시 안전과, 동부지방산림청

영월·평창·정선

고용노동부 영월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한국산업안전기술원(주),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대한건설협회 영월지회, 시멘트제조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영월군지부, 제조서비스등안전관리자협의회, 건설안전관리자협의회,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한국노총 강원영·평·정지역지부

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포스코이앤씨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산 동래 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 SK에코플랜트 드파인 광안 현장, 일광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현장 (주)동원개발 컨소시엄, (주)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대선주조(주) 기장공장, (주)포스코이앤씨 부울경 부산시장 물류센터 신축공사, (주)한화 건설부문 오시리아 메디타운 개발사업현장, 롯데몰 동부산점, SK에코플랜트(주)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대건설(주) [가야동 공동주택 1차, 2차 신축공사], (주)포스코건설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삼성물산(주)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KT 부산경남광역시본부, (주)풍산 부산사업장, (주)에이치제이중공업,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 삼성전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참여기관

(주)부산공장, 부산신항만(주), 르노코리아자동차(주), (주)동일고무벨트, 동국씨엠(주)부산공장, 대선조선(주), (주)강남, KNN, 부산일보,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건설재해예방협회 부산지역본부,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부산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항만공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주)가온건설안전원, (주)미래건설안전건설팀, (주)서경건설안전, 삼성창원병원, (주)티직업환경의학센터, 창원파티마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센터, 경남산업안전기술원, (주)경동안전기술원, (주)한국산업안전건설팀, (주)한국산업안전검사, (주)코리아베스트세이프티아, (주)경남산업안전본부, (주)경남안전기술단,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케이조선, 한국지엠, 현대위아,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경남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직업건강협회 부산경남지부, 직업건강협회 부산경남지부, 창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창원지역 대기업 안전보건 협의회,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KBS창원, 창원시설관리공단, 칠서산단관리공단,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창원시,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진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제임스안전지조사 종합사무소, 한국건설지원단(주), (주)태영안전기술단, 삼한건설안전(주),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협회(주), 진주고려병원, 제일병원, (주)케이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경남일보, (주)서경방송, 진주KBS, 사천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 (주)장생도라지, 두원중공업(주), 무림페이퍼(주), 한국경남태양유전(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안전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진주시사,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거창군, 사천시, 진주시

통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의)대우의료재단, (주)삼성안전기술지원단, 한국안전연구원(주), 경남매일, 거제통영 안전관리자 협의회(건설), 경남 조선업 안전보건 협의회, 통영상공회의소, 거제상공회의소, SK에코플랜트(주) 양촌·용정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두산건설 거제 송정 임대주택 신축공사, 현대엔지니어링 광도면 죽림 공동주택현장, 코오롱글로벌(주) 국지도58호선 현장, SK오션플랜트, HSG성동조선, 삼성중공업(주), 한화오션(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발전본부,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울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항만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직업건강간호협회 부산경남지부울산지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동남권2차전지협의회, 울산자동차부품사안전협의회, 울산지역조선업안전관리협의회, 울산안전소통위원회,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울산건설안전보건협의회, 온산공단안전관리협의회, 울산여천안전협의회, 울산석유화학단지협의회, 경상일보, UBC울산방송,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울산우체국,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울산발전본부

양산·김해·밀양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경남매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동부지회, 경남동부 안전보건관리자 협의회, 밀양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 양산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 김해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 김해상공회의소, 양산상공회의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밀양시 안전재단관리과, 김해시 시민안전과, 양산시 시민안전과, 부산-김해경전철(주)

대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시본부,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대성에너지, 대구서부지청관내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 대구청관내안전관리자협의회, 대구축산농협지도경제본부, 산림조합중앙회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구시회, (주)정인안전연구소, 제일안전관리(주), 대한건설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주), 대경안전지도사사무소, 한국전기공사협회안전기술원1사업소, 진안전건설터트, (주)영남건설안전, (주)삼진구조안전기술원, (주)대한안전기술원, 서상건설안전(주), 신한국건설안전(주), 건설안전경영, (주)한국안전건설팀, (주)신영씨엔에스, 대경안전건설팀(주), (주)이에이치에스연구소, (주)대구가톨릭산업보건센터,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가톨릭산업안전(주), 한국안전기술공사, 한국안전관리(주), (주)한국안전기술원, (주)산업안전기술원, 영남산업안전관리(주),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 한국철도공사 대구지역관리단 안전보건처, 대구교통공사 안전관리처(산업안전팀), 대구도시개발공사 안전감사실,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전력사업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대구광역시청 중대재해예방과

포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매일신문, (주)포스코퓨처엠, (주)세아제강, 동국제강(주)포항공장, 현대제철(주)포항공장,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역지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포항지역지부, 포항상공회의소, 경주상공회의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포항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회, 경주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회, 4대철강업체 더 안전일터 만들기 협의회, 포항제철소 패밀리사 안전관리인협의회, 경주시안전보건관리협의회, (사)경북동부안전관리인협의회, (주)한국안전건설팀(포항지사), 신한국건설안전(주)포항지사, (주)틱록, 한국안전기술협회 포항지회,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병원, 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재)포항성모병원,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동부지사, (주)한국산업안전건설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한국전력기술, (주)미래산업보건연구소, 순천향대학 부속 구미병원, 매일신문 경북서부본부,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북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김천구미안전관리자협의회(건설), 구미김천안전관리협의회, 김천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구미지부, 구미시청

영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주)대한안전기술원, 문경상주 건설안전협의회, 봉화영주 건설안전협의회, 안전관리협의회,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 영주상공회의소,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봉화군청, 상주시청, 문경시청, 영주시청

안동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한국남부발전(주) 안동빛드림본부, 오케이에프음료주식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주)대한안전기술원, (주)한국안전기술원 안동지사, (사)대한산업안전협회경북북부지회, 안동상공회의소,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안동 안전협의회, 한국노총 안동지부, 청송군청 안전정책과, 영양군청 자치행정과, 의성군청 기획조정실 총무과,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안동시청 안전재단과,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남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인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대한항공, HD인프라코어, 한국공항(주) 인천지점, 아시아나 에어포트(주) 인천지점, 아시아나항공, 동서식품, HK연우,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주)셀트리온, 공항철도(주), SK인천석유화학(주), 현대우산인프라코어(주), (유한)스태츠칩팩코리아, 한국남동발전(주)영흥발전본부, PSM(발전사협의회, 항만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북부 현장소장 협의회, 영종도 건설현장안전관리자 협의회, 송도 건설현장안전관리자 협의회, 남동구 건설현장안전관리자 협의회, 식품제조연합회, 연합분야 협의회, 비금속분야 협의회, 금속기계분야 협의회, 인천 서부공단사업장 협의회,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참여기관

인천 남동공단 사업장 협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인천보건안전센터, 직업병안심센터, 인천근로자 건강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노동권익센터,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중부종합안전, (주)제이세이프티, (주)세이프티건설링, 대한산업안전협회 중부지역본부,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인천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 인천항만공사, 부평구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부천·김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포시협의회, 온세미 코리아, 한국서부발전(주), SK에코플랜트(주), GS파워(주), 조엔지니어링산업안전지도사사무소, 바로플랜 안전지도, 더안전과품질지도사 사무소, 중부종합안전(주), 경인산업안전연구소, (주)이에이치에스프렌즈,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 부천대성병원, 한신이에스엠, 중소기업안전기술원(주), 에스텍이엔씨(주), (주)한국안전연구소,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김포안전관리자협의회,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김포이젠자식산업센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일심지원센터, 부천시이동노동자센터, 부천근로자건강센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김포상공회의소, 부천상공회의소, 김포신문, 부천신문, 엘지헬로비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팀, 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

의정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공감산업연구소(주), 경기산업보건센터(주), 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주)산업안전건설링, (주)재해예방건설링, 대한산업안전협회경기북부지회, 검준일반산업단지주

업협의회, 백학일반산업단지주업협의회, 경기북부건설현장협의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노총 경기동북부, 한국노총 경기중북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철원군 안전총괄과,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포천시 안전총괄과, 양주시 안전건설과,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고양·파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시사,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발전본부, LG디스플레이(주), 경기일보, 교하문발 산업단지 협의회,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 협의회, 파주지역 안전관리자 협의체, 고양지역 안전관리자 협의체, 선진건설안전(주), 제일안전기술(주), 세종안전기술(주),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주)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 파주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 파주시사,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파주시, 고양시

경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기아(주)AutoLand화성, 삼성전자(주),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주)경기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경기일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경기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직업건강협회 경기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화성시청 기업투자실, 용인시청 시민안전관, 수원시청 경제정책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경기도청 노동안전과

안양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건설안전관리자 협의체, 과천시식정보타운 현장소장 협의체, 광명

뉴타운현장소장협의회,삼영운수(주),쿠팡,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소, 기아(주)AutoLand광명,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주)대한산업안전협회경기서부지회, 미디어큐, 안양신문, (주)한국의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의왕시지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한국전력공사 안양군포의왕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의왕소방서, 군포소방서, 광명소방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SPC삼립 안산공장,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 (주)경기매일신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안전관리협의회,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시흥시 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안산시 협의회, 시흥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시흥시 기업지원과,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 이천상공회의소,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성남상공회의소, 양평군 안전총괄과, 여주시 자치행정과, 하남시 안전정책과, 이천시 안전총괄과, 광주시 재난안전과, 성남시 재난안전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평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건설종합안전(주), 굿모닝산업보건센터, 중앙안전보건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주)포승경영자협의회(포승산단), 안전관리자 지역협의회, 평택시 장당노동자 복지회관, 평택시 민안전문화협회,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 안성지부,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국노총 평택지부, 안성 상공회의소, 오산 상공회의소, 평택 상공회의소,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 한국전력공사 평택

지사, LH 평택사업본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 안성시 행정과, 오산시 안전정책과, 평택시 총무과

광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중흥토건(주), 남도일보, KBC 광주방송,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광주교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립나주숲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전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TBN전북교통방송, 연합뉴스, 새전북신문, JTV, 정읍지역안전관리자협의회, 건설안전협의회, 전주완주산단안전관리자협의회,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국민연금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 전주시, 전라북도

익산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원광대학교, (주)푸드웨어, 광전자(주), (주)하림,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전라북도안전보건네트워크, 전북지역 화학공장협의회, 익산김제건설안전협의회, 익산지역안전보건협의회, 익산군산축협, 익산상공회의소,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참여기관

한국노총 익산시지역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 김제소방서, 익산소방서, 김제시, 익산시,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군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서부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투데이군산, 군산미래신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협약체, 제조업 안전보건관리협약체,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군산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부안군, 고창군 안전총괄과, 군산시 안전총괄과, 한국수자원공단 서해본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전라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남매일, 목포MBC, 전남서부건설안전협의회(건설), 서남권안전관리자협의회(제조),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한조선(주), 한국노총 목포지역본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경영자총협회,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포상공회의소,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전남지회,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사)건설재해예방협회 광주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한국여초어항공단 서남해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진도군청, 완도군청, 신안군청, 해남군청, 강진군청, 장흥군청, 무안군청, 영암군청, 목포시청, 전라남도교육청

여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여수MBC, 한국안전관리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광양-건설업 안전관리자협의회, 순천보성고흥-건설업 안전관리자협의회, 여수-건설업 안전관리자협의회,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석유

화학 안전관리위원회,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명예산업안전 감독관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여수광양항만공사, 보성군, 고흥군,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제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한전 KPS(주) 제주사업소, 제주대학교병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식품품 제조업 협의회, 건설안전관리자 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제주지사, (주)에이원세이프티, (주)제이제이안전, (주)도하안전기술원, 신한안전기술원(주), 제일세이프티(주), (주)한국건설안전,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전보건대학교환경안전보건과,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대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대전보건안전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주)한국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주)한국건설안전공사, (주)금강건설안전공사, (사)건설재해예방협회 대전본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사)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 대전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세종협의회(통합), 대전서남부협의회, 대전·충청지역 관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충남 경영자총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폴리텍IV 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

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충청지방우정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성경식품, 선양소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롯데웰푸드 대전공장, KT서비스남부, 로쏘(주)성심당

보령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주)세종재해예방기술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청양)화성농공단지관리사무소, (서천)충청농공단지관리사무소, (부여)은산산업단지관리사무소, (홍성)구항농공단지관리사무소, (보령)웅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 서해안안전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충남도회, 대한건설협회충청남도회·세종시회,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보령시

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주)한화글로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보은사업장, (주)정식품, 굿월아이엔씨(주)충북, 한국도자기(주), LG화학 청주공장, 청주벤처스마트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옥천삼양 행복주택 건축공사,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주)원앤씨, 동서식품(주) 진천공장, (주)우진물라임, 자화전자(주),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오송공장, (주)오리온 청주공장, (주)삼양패키징 광혜원공장, (주)페제베운영, 협성건업(주), 현대모비스(주) 진천공장, (주)마크로케어, 엘에스일렉트릭(주), 대양판지(주) 청주공장,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매일유업 영동공장, 우진교통(주), 에스케이이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주)창성, 피아이첨단소재(주), (주)오토닉스, (주)한국휴먼안전건설팅,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역본부, (주)한국기초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충북지회, 대한안전관리센터(주),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 (주)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주)건설안전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설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보성파워텍(주), 금성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충주

KBS, 한국교통대학교(안전융합공학과, 건국대학교(소방방재융합학과, 세명산업보건, 충주 중원산단 대표자협의회, 대소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 충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음성군협의회,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 단양군, 음성군, 충주시, 현대모비스(주), 세명대학교(보건안전학과, 충북산업환경,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 충북지역 시멘트업종 안전보건협의회, 송학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제천 바이오밸리 입주기업협의회, (사)원남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흥건설(주),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음성상공회의소, 제천시,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

천안·아산·예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자동차부품 안전관리 협의회, 철강업 안전관리 협의회, 천안·아산 제조업 안전관리 협의회, LS ELECTRIC, 삼성전자(주)은양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주), 현대제철(주)당진공장, 동국제강(주)당진공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당진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서산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회, 서산 안전관리 협의회(저동재, 서산석유화학단지안전협의회, 태안군 안전총괄과, 서산시 안전총괄과

공단 편찬위원



서울 광역본부 박두웅	경북 동부지사 고지현	전북 지역본부 권수현
서울 동부지사 강동수	경북 지역본부 강윤희	전북 서부지사 양성희
서울 남부지사 문부성	인천 광역본부 박 현	전남 지역본부 김혜영
강원 지역본부 안서우	경기 중부지사 김유정	전남 동부지사 김순남
강원 동부지사 이원환	경기 북부지사 박광호	제주 지역본부 김희성
부산 광역본부 김창수	고양 파주지사 강효진	대전세종광역본부 김혜겸
경남 지역본부 임성준	경기 지역본부 송기명	충북 지역본부 박차미
울산 지역본부 정 권	경기 서부지사 길용원	충북 북부지사 권 근
경남 동부지사 김민호	경기 동부지사 홍준석	충남 지역본부 신혜리
대구 광역본부 여희찬	경기 남부지사 구자훈	
대구 서부지사 이정민	광주 광역본부 이해솔	

본부 - 안전문화홍보실 심연섭, 최원창, 심동윤, 정지은

고용부 편찬위원



서울 청 최지수	구 미 도세환	전 주 서재훈
강 원 안숙경	영 주 배재환	익 산 탁일승
원 주 박환주	안 동 박민훈	군 산 정찬호
강 령 허 윤	중 부 청 최진아	목 포 한미라
태 백 신재웅	인천북부지청 유재욱	여 수 박은진
영 월 이관봉	부 천 박재정	제 주 조현섭
부 산 청 김영관	의 정 부 조광석	대 전 청 조성운
창 원 장석제	고 양 장재훈	보 령 김아로
진 주 주상민	경 기 이정엽	청 주 김은혜
통 영 박동희	안 양 권은희	충 주 이혜미
울 산 김수빈	안 산 이재환	천 안 이승환
양 산 심중현	성 남 김기덕	서 산 양일준
대 구 청 안병혁	평 택 양재연	
포 향 고준혁	광 주 청 장성권	

본부 -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김문실, 김강산, 김석한, 김은채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 발행일 • 2025년 3월
- 발행인 • 김문수, 김현중
- 발행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디자인 • 필드가이드 Tel 02.6375.2665
- 취재 • 안전신문사
- 인쇄 • 명일인쇄

이 교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며, 자료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업무상 이익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